

원양산업

제 1147 호
(2022년 7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WTO 수산보조금 대응방향 설명회 개최 / 4
- 케이프타운 협정 추진현황 및 계획 설명회 개최 / 5
- 키리바시 국회의원 방한, 저녁 만찬 / 6
- 한국선원주간 행사 개최 / 7
- 수산계 고교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개최 / 8
- 8월 이달의 수산물로 '오징어' 선정 / 9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22년 6월 보고 내용 / 10
- 요리 만들기 / 16
(오징어전)



해외수산물정보

■ 국제유가 동향

-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달 대비 21% 하락 / 17

■ 참치어업 동향

- 방콕 가다랑어 가격 상승 예상 / 18
- WCPFC 2023년 1월 1일 옵서버 중단 조치 해제 / 18

- 5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어획량 증가 / 19
- 중서부태평양 전채량 3년 내 최고치 / 19
- 日 도요시시장 냉동 눈다랑어 kg당 1,234 엔 / 20
- 日 5월 대만산 냉동 눈다랑어 수입단가 1,018 엔 / 20
- 日 2022년 5월 냉동 참치 원어 수입 통계 발표 / 21
- 에콰도르 만타 가다랑어 가격 톤당 1,800 달러 / 22
- WWF,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자원 재평가 추진 / 22
- 에콰도르 1분기 참치 수출 2억 9,000만 달러 / 23
- IATTC 연례회의 사무국 권고 문서 / 23
- 대서양 가다랑어 자원 건강 / 24
- EU 등 ICCAT에 눈다랑어 TAC 확대 요구 / 25
- Tri Marine, MSC 인증 눈다랑어 추가 추진 / 25
- OPRT, 참치 연승선 노동문제 해결 결의안 채택 / 26
- 日 이토추상사, 중서부태평양 참치 선망 MSC 획득 / 26
- EU 1분기 참치 원어 수입량 38% 감소 / 27
- EU 1분기 눈다랑어 원어 수입 15% 감소 / 27
- EU 1분기 가다랑어 원어 수입량 44% 감소 / 28
- 1분기 EU 황다랑어 수입량 31% 감소 / 28
- 세이셸-EU, 수산협정 6년 갱신 / 29
- EU-카보베르데 수산협정 5년 갱신 / 29
- EU 수산물 소비 감소 / 30
- EU 선망선단, 유가 급등으로 어두운 전망 직면 / 30
- 1분기 미국 가다랑어 참치캔 수입량 10% 증가 / 31
- 미국 1분기 참치 파우치 수입량 10% 증가 / 31

Contents

• 미국 슈퍼마켓 체인 Hy-Vee, 참치 공급어선 공개 / 32	• 바이든, IUU 대응 국가안보각서 서명 / 41
• 베트남 2022년 1분기 참치 수출 72% 증가 / 32	• 인도네시아 정부, 외국어선 승선자 보호규정 발표 / 42
• 하와이 참치연승, EPO 눈다랑어 MSC 평가 실패 / 33	• FCF, 인니 송출업체에 채용 프로그램 도입 추진 / 42
• FCF 중서부태평양 선망어업 MSC 인증 획득 / 33	• 컨테이너 운임, 성수기임에도 하락 / 43
• TUNACONS 황다랑어 MSC 인증 획득 / 33	• 바이든, '폭리' 해운업체 압박하는 법안 서명 / 43
• 볼튼 책임있는 참치 조달 69% / 34	• 노르웨이 상반기 수산물 수출 69억 달러 / 44
• 스페인 Frim사 황다랑어 스테이크 공장 신설 / 34	• 캐나다 기업, GFW에 위성정보 접근 제공 / 44
■ 오징어어업 동향	• 생선 통조림 섭취, 대장암 위험 34% 감소시킨다. / 45
• 대왕오징어 가격 상승세 / 35	• 미쓰비시·마루하치로 육상 연어 양식 진출 / 45
• 日, 대왕오징어 지느러미(귀) 수입 증가 / 35	• 美 수산물 매출, 물가 상승 영향으로 하락 / 46
■ 명태어업 동향	• 미국 소비자들, 수산물 추적 원해 / 46
• 러시아 명태 1~6월 생산량 118만톤 / 36	• FAO, 2022년 세계 어업·양식업 현황 발표 / 47
• 러시아 환살생선, 제재 조치에도 시장에 나올 것 / 36	• 러시아 은행 SWIFT 퇴출로 가속화된 탈 달러화 / 48
• 러시아, 베링해 명태 쿼터 36% 증가 일방적 추진 / 37	• 美-英,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어업 둘러싼 갈등 / 49
• 26주차 러시아 냉동 어류 가격 / 37	• 케냐, 어획량 증대 위해 합작 투자 장려 / 49
• 러시아, 바렌츠해 경계선 확정조약 파기 검토 / 38	• MSC, 새 어업 표준 승인 / 50
• 러시아 4월까지 수산물 수출량 20% 증가 / 38	• ICES, 바렌츠해 대구 쿼터 권고안 발표 안 해 / 50
• 알래스카 명태 B시즌 시작 / 39	• 고등어 쿼터 둘러싼 유럽 연안국 긴장 고조 / 51
• 러시아 정부 투자쿼터 2년 연장 / 39	• 인공지능 연구, 어획물 분류 등 수산업 활용 가능 / 51
■ 공치어업 동향	■ 쉬어가는 난 (시)
• 日 2022년 3월 공치 재고량 5,730톤 / 40	• 바다 <정연복> / 52
• 日 공치붕수망어업 8월 10일부터 / 40	■ 국내 수산 정보
■ 각국 수산 동향	• 6월 오징어 국내 동향 / 53
	• 6월 명태 국내 동향 / 55
	• 2030부산세계박람회 특사단, 태평양 도서국 릴레이 면담 / 57
	• 해수부 비축 수산물 상시 방출 체제 가동 / 58

WTO 수산보조금 대응방향 설명회 개최

IUU·과잉어획 보조금 금지 합의, 원양보조금 등 4년간 후속 논의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30일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WTO 수산보조금 대응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 통상 무역협력과 박용한 과장, 오성택 사무관을 비롯해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정일산업, 티엔에스산업, 우리 협회 해외협력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제12차 WTO 각료 회의(‘22.6.12~17)에서 수산보조금 협상이 합의 타결됨에 따라 이를 설명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의 설명에 따르면 주요 합의 내용은 △ IUU 어업에 가담한 선박 및 운전자 및 △과잉 어획된 어종의 어획에 대한 보조금과 △기타 보조금 금지이다. 기타 보조금은 연안국 및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 관리 수역 외 공해상의 비규제 어업 보조금을 말한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으로 보면 FAO 41해구에서만 연중 배타적으로 조업하는 어선이 해당될 수 있지만 명확한 적용대상·범위·기간 등은 현재 불명확한 상태로 후속 협상 재개 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면세유·원양보조금·개도국유예 등 일부 주요 조항은 주요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유보·삭제하기로 했다. 삭제된 조항(면세유·원양보조금·개도국유예)은 협정 발효(164개 회의국의 3분의 2 이상 비준) 후 4년 내에 합의하기로 했으며 합의되지 않을 경우



협정이 실효(일몰조항)된다. 향후 ‘원양보조금 금지’ 등에 대한 후속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비준 일정에 대해 빠르면 1년 정도이고 타국의 비준 분위기를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제노동’에 수산보조금을 금지하는 이슈가 이번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등에서 논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우리 업계는 해양수산부에 41해구의 경우 기국이 자원관리조치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면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원양어업 경영자금 관련 연근해의 지원방식, 용어 등을 활용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케이프타운 협정 추진현황 및 계획 설명회 개최

해수부, 올해 하반기 비준 요건 만족 전망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1일 영상회의로 ‘케이프타운 협정 추진현황 및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김영민 사무관,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대해수산,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신해피서리, 승진수산, 아그네스수산, 정일산업, 티엔에스산업, 한성기업, 우리 협회 해외협력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케이프타운 협정이란 어선의 구조·설비·장치 및 운영 규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어선·어선원 안전 보장과 IUU 어업 예방을 위해 IMO(국제해사기구)가 2012년에 채택한 협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외교부에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 요청서를 송부했고 향후 법제처 심사, 국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IMO에 비준서가 기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협정 발효 요건이 갖춰져 발효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발효 요건은 22개국 3,600척이고 현재 비준 현황은 17개국 1,925척이다. 마지막 국가의 비준 날짜로부터 1년 후에 협정이 발효된다.

해양수산부는 신조선과 현존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조계약’의 정의에 대해서는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



다. 케이프타운 협정 상 ‘중요한 개조계약’이 이루어지면 신조선으로 간주되어 더 많은 조항에 적용받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우리 업체는 포클랜드 수역 입어에 필요한 ‘토레몰리노스 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 준수에 대한 사실관계 성명서’를 한국선급에서는 발급하고 있으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발급 검토 중으로 공단에서도 발급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공단에 요청했다. 토레몰리노스 협약은 케이프타운 협정 이전의 협약으로 케이프타운 협정의 정식 명칭은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규정 시행을 위한 2012 케이프타운 협정서’이다.

해양수산부는 비준 진행사항 설명을 위한 후속 설명회를 올해 8월과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키리바시 국회의원 방한, 저녁 만찬

2030년 엑스포 유치지지 당부, 양국 협력 관계 확인



키리바시 국회의원 등 9명이 키리바시 내 국립수산대학 설립 협의 등을 위해 지난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우리 협회와 키리바시 조업선사들은 지난 6월 23일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양국 수산 관련 우호 관계를 다지기 위해 이들과 만찬 자리를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키리바시 측) 국회의원 4명(Hon. Tinian Reiher, Hon. Tebao Awerika, Hon. Taiaki Irata, Hon. Harry Tekaiti), 그들의 부인 4명, 전 피지대사 Mrs. Reteta Rimon △(우리 측) 동원산업 이명우 대표, 박상진 상무, 사조산업 김치곤 대표, 이경영 부장, 신라교역 김호운 대표, 이광세 고문, 우리 협회 신현애 해외협력본부장, 최봉준 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우리 측은 2030년 엑스포 유치에 있어 한국 지지를 당부하고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확인했다.

Tinian 의원(전 수산부 장관)은 “키리바시와 한국

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윈윈 관계”라며 “키리바시 국경이 8월 1일부로 전면 개방될 예정으로 9월 허가 갱신일 이전에 타라와에 방문해 협의하는 것이 비대면 회의보다 효과적이며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키리바시는 우리나라 원양 참치어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키리바시 EEZ에 선망선 21척이 입어해 5만 8천톤을 어획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 안보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면서 키리바시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의 위상과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3년마다 개최해왔던 한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하며 장관회의 주기도 2년으로 단축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원양선사들이 수십년에 걸쳐 다져놓은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가 우리나라 안보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도서국에 대한 ODA 지원 등 협력 확대도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선원주간 행사 개최

협회장, 원양어업 발전에 기여한 선원 2명에게 표창 수여



해양수산부는 '세계 선원의 날(6월 25일)'을 기념해 '당신의 항해 - 그때와 지금, 당신의 여정을 소개해주세요(Your voyage - then and now, share your journey)'를 주제로 '한국선원주간' 행사를 6월 22일부터 개최했다.

'한국선원주간' 행사는 6월 22일 열리는 국내 전문가 포럼과 23일 한국선원주간 국제콘퍼런스로 구성된다.

한국선원주간 국제콘퍼런스는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렸다. 개막식에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 이종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고성원 한국해운조합 회장 등 선원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막식에서 우리 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표창식이 있었다. 윤명길 회장은 원양어업에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하며 원양어업 발전에 기여한 경양수산 김광울 기관장(승무경력 30년 8개월), 코삭교역 백영칠 기관장(26년 11개월)에게 협회장 명의 표창과 부상을 수여

했다. 표창 수상자가 모두 승선 중이어서 가족이 대신 수상했다.

이후 전현직 선원과 국내외 학자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선원의 여정을 듣다 △선원정책방향 토론회 △선원 안전보건 증진방향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동원산업 정환석 선장은 '선원으로의 나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선원으로 겪어왔던 경험을 발표했다.



수산계 고교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개최

우리 협회 홍보사업 추진 위해 5,000만원 기탁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4일 정부 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수산계 고교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박진동 위원장, △(사)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성호 회장, △(정)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민중 원장과 △완도수산고 황유선 교장 등 6개 수산계 고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기점으로 합동 홍보사업이 추진된다.

홍보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협회(5,000만원) 등 7개 기관 및 단체가 홍보비용으로 총 2억3000만원을 모았다.

모아진 기금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기탁되어 용역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다.

우선, 수산계 고교 3학년 대상 종합승선 실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항지(삼천포, 포항)에서 관내 중학생, 학부모 등에게 승선체험을 제공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실습선인 한미르호 내에 수산계 고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찾아가는 학교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계 고교의 매력과 특징점을 유튜브, 대형 포털(네이버 등) 및 SNS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국의 청소년 자립지원관 및 쉼터를



방문해 청소년들에게 어선원이라는 직업, 해기사 교육 과정 등을 설명하고, 어선원으로서의 진로를 소개하는 일정도 계획되어 있다.

수산계 고교 활성화는 청년 어선원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다. 수산계 고교가 우리나라 어선 분야 해기사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산계 고교 승선학과 신입생 모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 어선기피 현상 등으로 22학년도 전국 9개 수산계 고교 승선학과 신입생 모집률은 54.9%에 그쳤다.

또 어선원 수가 2010년 1만 7,831명에서 2020년 1만 4,975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60세 이상 해기사 비중이 같은 기간 11.7%에서 50.7%로 상승하는 등 어선원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향후 조업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이달의 수산물로 ‘오징어’ 선정 12월 대구 예정

올해 8월 이달의 수산물로 오징어, 돔류가 선정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매월 2개의 어종을 이달의 수산물로 정하고 보도자료 배포, 어식 백세 블로그(한국수산회 운영) 게시물 게시, 포스터 배포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오징어가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것은 2016년 이후 6년만이다.

지난 3월에는 참치가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다가오는 12월에는 대구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원양 어획물이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데에는 해양수산부의 노력이 있었다.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는 유통정책과에 원양 어종의 이달의 수산물 선정을 건의했다. 유통정책과에서는 이를 일부 수용했다.

우리 협회는 원양산업과의 요청으로 이달의 수산물 원양 어종 추천 건의자료(1월 명태, 참다랑어/ 2월 이 빨고기/ 3월 참치/ 4월 눈다랑어/ 5월 오징어/ 6월 황다랑어/ 7월 가다랑어/ 9월 대구/ 10월 꽁치/ 11월 과메기/ 12월 대왕 오징어)를 제출한 바 있다.



회원사 회사명 · 주소 변경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변 경 전	대양수산(주)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로 16번길 5, 6층(우리빌딩)
변 경 후	(주)신해피서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88, 802호(은산베이빌딩)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6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가. 기니에 체포되었던 세네갈 어부 300명 풀려남

- 6월 9일 세네갈 수산부 장관 알리온 은도예(Alioune Ndoeye)는 기니 당국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니 공화국의 수도인 코나크리(Cornakry)로 이동함.
- 양국 협의하에 허가 없이 어업 활동을 한 죄로 체포된 300명의 세네갈 어부들이 풀려났음.
- 벌금 및 각 선박의 면허를 지불하는데 78,000유로를 조금 넘겼음.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파운드, lbs)	가격(유로/톤)
가다랑어	3.4kg	1,266
	1.8kg	1,217
	1.5kg	1,071
황다랑어	10kg	1,412
	3.4kg	1,315
	1.8kg	1,217
눈다랑어	10kg	1,266
	3.4kg	1,266
	1.8kg	1,217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다카르항	507 유로/MT	경유	'22.6.24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제51회 태평양제도 포럼회의(PIF)관련

- 9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을 특사로한 한국대표단본대(이명우 동원산업 사장, 권용우 BIE 협력대사, 송선용 부산박람회유치 총괄팀장 등 15명) 피지에 도착함.

나. 코로나19 현황

- 현재 피지는 코로나 감염이 일평균 수명 단위에서 7~80명 단위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로 당국에서는 저조한 3차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노력중이며 5세에서 11세 유아의 접종을 고려하고 있음.
- 확진자 증가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로 각 병원에 한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일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2,900	로인가공용(PAFCO)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1,450달러/MT	MGO	'22.7.8



변경대 미얀마 명예해양수산물



변경대
명예해양수산물

가. 붕괴 직전의 미얀마 수산업

- 미얀마 수산 업계의 매출이 올해도 사상 최대의 감소폭을 보일 것이며 빠른 시일 내 회복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됨.
- 미얀마 수산물 수출 협회 (Myanmar Fisheries Products Processors & Exporters Association)는 최근 수요 감소로 인해 미얀마 수산 업계가 고사 직전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음.
- 미얀마 수산 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미얀마 수산업을 지탱한 것은 수출이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산물 수요가 급감하면서 수출에 큰 차질이 생긴 것으로 파악됨.
- 그동안 미얀마는 수출의 45%가량을 유럽을 위시한 서구권 국가에, 나머지 55%는 중국과 태국에 의존했는데, 코로나19로 이동에 제한이 오면서 신선 식품인 수산물 운송에 지장이 생겼고, 또한 수산물 소비도 크게 줄었다는 것이 미얀마 수산물 수출 협회의 의견임. 미얀마 수산물 수출 협회는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미얀마 수산업계의 구조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함.
- 수산물 수출 급감은 단순히 수산물을 채취하는 어업 농가에만 여파를 미치는 것이 아님.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먼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은 수산물을 보관하는 냉동창고 운영 사업자로, 시설 유지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매출이 사라지면서 자금 부족을 호소했음.

- 또한 양식장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어류용 사료 생산 사업자들도 동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자연산 수산물을 채취하는 사업자들도 계절성 수산물의 판매를 1년 뒤로 미루어야 하는 상황임. 더불어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각종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작업을 중단함. 더 큰 문제는, 수산업 활동이 재개되더라도 당분간은 원재료 공급 부족으로 이전 수준의 생산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임.
- 여기에, 미얀마 수산업계는 정부로부터 수출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미얀마 정부가 입안한 코로나 긴급 지원 패키지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 미얀마 수산물 수출 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토로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이에 미얀마 농수산물부(Ministry of Agriculture)는 관련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나. 미얀마 군사정부의 화해 모드

- 미얀마 군사정부가 반대세력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됨.
- 미얀마 군정의 조 민 툰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유혈사태를 끝내기 위한 수치 고문과의 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음. 조 민 툰 대변인은 "정치에서 불가능한 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그는 또 "일부 국가들이 그와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으나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미얀마 군정은 수치 고문을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선동 및 뇌물수수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한 상태이며 모든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150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이달말 열리는 외교장관 회의에 미얀마 군정의 운나 마웅 르윈 외교장관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음.
- 블랙 소콘 외교장관은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얀마 군정에 비정치적 인물만 회의 참석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음.
- 캄보디아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도 프놈펜에서 제55회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비롯하여 여러 관련 행사를 개최함.
- 이같은 일련의 강경한 조치는 미얀마 유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이 채택한 5개 합의를 군정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업 동향

- 금월 사모아 및 연근해 어장인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평균 어획율은 날개다랑어 0.5~1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0.2~0.3톤의 어획율을 보이고 있음

나. 코로나 관련 동향

- 코로나 비상사태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이 발표되었음. 시행령이 발효되는 2022년 6월 27일 월요일부터 아메리칸 사모아에 적용되었던 모든 통금 제한이 해제됨.
- 따라서 모든 비즈니스 운영시간도 자율적으로 정해질 수 있게 되었음.

- 다만 마스크 착용은 △비즈니스나 기관에서 일하거나 그 장소 운영자들이 그 비즈니스나 기관 장소에 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장소, △아메리칸 사모아로 운행하는 항공편, 선박에 탑승한 경우, △학교 캠퍼스, 또는 보육원 시설 내 착용해야 함.
- 아메리칸 사모아 입국을 위해서는 “탈로파패스 Talofapass”에 등록해야 하며 그 등록은 △출발지가 사모아일 경우, 입국 5일 전, △출발지가 사모아가 아닐 경우, 입국 14일 전에 이뤄져야 함.
- 아울러, 만 5세 이상은 백신 접종 완료(2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개인적 신병이나, 종교적 신념에 의한 백신접종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면제는 GAR(Governor's Authorized Representative, 이 경우, 부총독)의 승인에 한하여 허용됨.
- 사모아, 혹은 미국 본토 이외 다른 곳에서 출발하여 아메리칸 사모아에 입국하는 자는 △아메리칸 사모아에 입국하기 전, 미국영토, 혹은 사모아에 입국(항공편 탑승) 72시간 내 “코로나 PCR 검사 음성판정 증명”을, 탈로파패스 등록을 통하여 제시해야 함.
- 아메리칸 사모아에 도착해 입국 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 시 코로나 검사에 양성 시 5일간 격리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해야 함.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550	
눈다랑어	라운드	1,350	
가다랑어	라운드	1,350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조사일
Clipper, Oil	\$4.11(gallon)	'22.7.1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NZ-EU FTA 수산업 관련

- 뉴질랜드-EU 자유무역협정이 합의되어 2023년 초에 서명될 예정이라고 함.
- 수산업 관련해서는 효력일부터 99.5%에 한하는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함.
- 7년 후에는 100% 품목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임. 이로 인해 약 연 2000만 NZD의 감세 효과가 생겨 수산업계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됨.

나.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Z	1,691달러/MT	MGO	'22.6.14

다.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오징어	2L	4,350	Sea Jho Co LTD.
	L	4,150	
	M	3,650	
	2M	3,000	
	S	2,800	
	2S	-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금어기에 대한 어민들의 엇갈린 반응

- 해안 지역의 어민들은 다가오는 금어기에 대해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음.
- 그들 중 일부는 비생산적이라는 이유로 금어기 철폐를 요구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가혹한 경제 상황의 결과로 금어기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요구했음.
- 반면 이들 중 일부는 금어기는 좋은 제도이지만 적절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음.
- 어민들은 7월을 휴업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면서도 현재의 경제난에 직면하여 정부는 금어 기간 동안 예상되는 수입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어민들에게 얼마간의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음.
- 수도 Accra의 Jamestown 어획물 하류장에서 만난 어부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카누 어민들에게 어로작업을 금지하는 수산양식개발부의 지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음.

나. 불법 어로 장비 사용 시 법에 의한 제재 강화

- 2022년 9월부터 허가된 어망 사용을 거부하는 모든 어민이 제재를 받게 됨.
- 이를 발표한 수산양식개발부 차관인 Mr Moses Anim은 모든 어민들이 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변명 없이 지시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음.



- 그는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몇 차례 협의를 거친 후 국내 수산업 부문을 구제하기 위한 거버넌스 조치의 일환으로 어구, 특히 어망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 Anim 차관은 지난 6월 중 수도 Accra에서 열린 서 기니만 어업위원회(FCWC) 회원국의 미디어 실무자들을 위해 조직된 미디어 교육 워크숍에 참석해서 이를 발표함.

다. 어업 분야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도록 도울 것을 언론에 촉구하다.

- 가나 언론은 자국 내 가나 어선 선원들에 대한 학대, 폭력, 비인간적인 처우를 줄이기 위해 트롤 분야에 대한 보도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음.
- Nottingham 대학 권리연구소의 Dr. Vanessa Jaiteh가 가나 트롤어업 분야에 대해 실시한 새로운 연구에서 만들어진 권고 사항의 일부임.
- 외국인들이 주로 통제하고 공동 소유하는 어선에 승선한 가나인 선원들의 근무 조건을 조사한 연구는 많은 가나인들이 그러한 선박에서 학대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Dr. Jaiteh는 이전6월중 열린 미디어 교육 워크숍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박의 유익한 소유권, 선박 검사 프로토콜 및 기준, 채용 절차, 노동권 침해에 부과된 벌금 및 제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음.
- 그녀는 트롤선 선원들과 옵서버들을 보호하고, 영세 카누 어민들의 생계를 살려야 하며, 어류 재고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트롤 어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S\$)/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2,200	
	10kg 하	1,760	
가다랑어	3.4kg 상	1,450	
	1.8kg 상	1,400	
	1.5kg 상	1,250	
	1.5kg 하	1,100	

마.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기타
양상급유	1,400달러/kl	MGO	'22.6.30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관



이재원
명예해양수산관

가. 불법조업선에 대한 처벌이 투명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의 투명성이 사업환경의 확신을 어업인에게 줄 수 있음.
- 지난 5월 16일 인도네시아 불법어업감시센터 코디네이터 Mohammad Abdi Suhufan씨는 '정부는 불법조업선에 대한 처벌이 중립적이고 공정함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불법조업 혐의자의 정당한 소명절차도 없이 사법기관의 일방적인 처벌이 아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며, 법을 적용함에 있어 혐의자가 황당해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해야 한다' 고 주장함.



- 해양수산부는 2022년 1월~4월간에 60척의 불법조업선 행정처분을 했음. 6척은 서면 경고, 47척은 벌금형, 어업허가 정지 2척, 어업허가 취소 4척, 형사고발 1척임.
- 인도네시아 참치어업협회(Astuin) Muhammad Bilahmar 회장은 “정부는 모든 어업종사자에게 교통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벌금과 같이 처벌을 위한 벌금의 계산에 대해 공개하여야 하며, 어업종사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벌금에 대한 상세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함.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

가. Rabaul항 관련

- USL Trading & Agencies의 이름으로 한국 선망을 대상으로 7월 4일 부터 사업을 라바울 현지에 사무소 개설.
- 한국 선망선 및 운반선의 PNG 입출항 관련한 수산청 및 이민국의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될 예정이며, 본사는 수도인 Port Moresby에 위치함바, 대상 고객에게 정당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임.

나. 선거

- PNG는 현재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기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선거를 이번주에 실시했음(지역에 따라 선거 개시에 약간의 차이)
- 현재 선거로 인해 사회는 일부 혼란을 보이기도 하며,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몇몇의 출마자로 인해 신문지상 및 SNS상에 보도가 나오기도 함. 일

부 내용을 본다면 한 출마자의 집을 군경이 급습해 투표용지 6,000장을 발견, 압수했음.

- 이런 상황으로 인해, 다음 주 대부분의 투표가 완료되고, 개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됨. 이에 한국 대사관에서는 거주하는 한인에게 수시로 현 상황을 카톡 단독방에 올리고 있으며, 교민의 안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음.

다. 어류가격 동향

어종	단가	규격	기타
활 바다가재	30.82달러	0.6~1kg	
	42.02달러	1~1.5kg	
	50.43달러	1.5kg 이상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유종	조사일
TWL Logistics Ltd	1.0734달러/리터	Diesel	'22.6.7

〈계재순서 :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오징어전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 통오징어 2마리, 다진돼지고기 1컵,
당근 1/4개, 부추 1줌, 숙주 1줌,
두부 1/4모, 전분 1/2컵, 계란 1개

<속양념>

간장 1/2큰술, 설탕 1/2큰술, 마늘 1/2큰술,
다진대파 1큰술, 굴소스 1작은술, 소금, 후추,
참기름 약간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오징어 내장을 제거 후 다리랑 몸통을 분리한다.
- ② 오징어다리, 당근, 부추, 양파를 다진다.
- ③ 두부는 으갠 후 물기를 빼서 2의 소에 합친다.
- ④ 3의 재료와 다진 돼지고기에 양념을 섞은 후 계란물 1/2개, 전분가루를 넣어 치댄다.
- ⑤ 1의 오징어 몸통에 4의 재료를 넣고 이쑤시개로 고정 후 12분간 찐다.
- ⑥ 5의 오징어순대를 한 김 식힌 후 한입 크기로 잘라 그릇에 담아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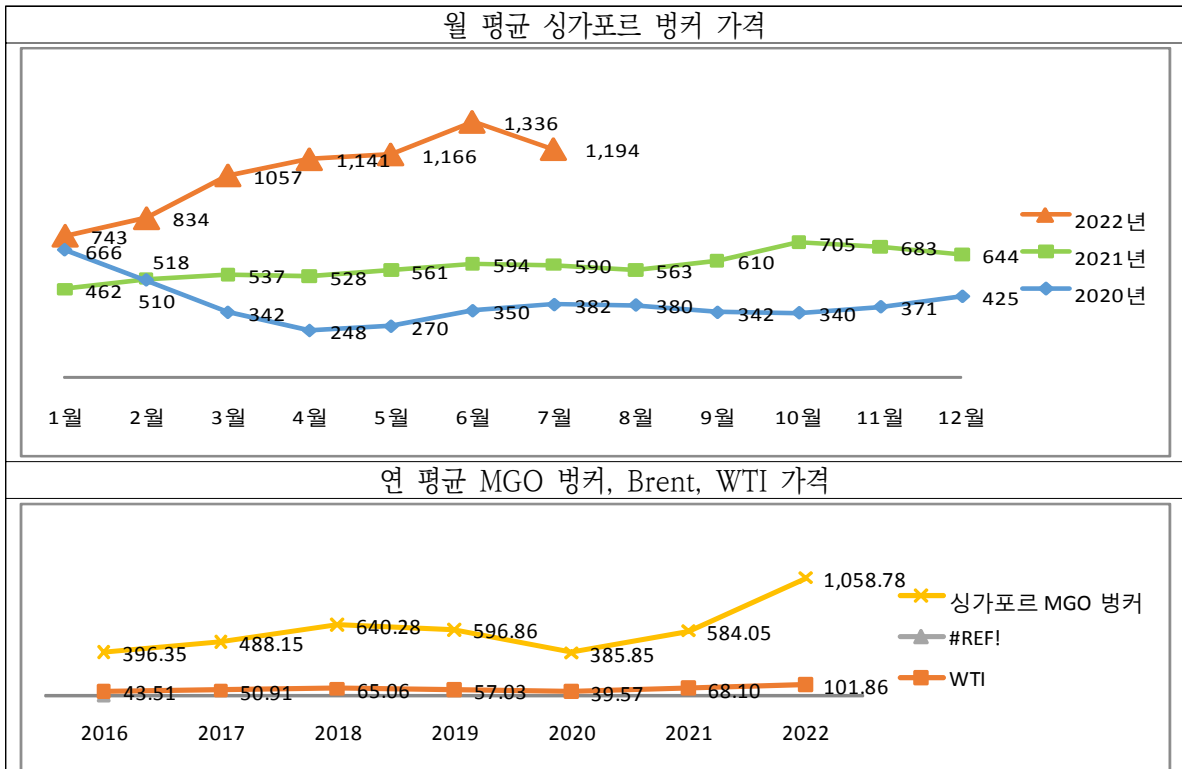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달 대비 21% 하락

하반기 국제 유가 소폭 하락세 전망

현재 유가는 세계 경기 침체 우려, 미국 상업원유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7월 14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99.70 달러, WTI 가격은 배럴당 95.78 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99.10 달러를 기록했다.

7월 7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벙커 가격은 톤당 1.055 달러로 6월 7일(1,340 달러) 대비 21% 하락했다. 7월 평균(7.1~7.7) 가격은 1,194 달러로 6월 전체 평균 대비 11% 감소, 2021년 7월 전체 평균 대비 102%, 2020년 7월 대비 213% 상승했다. 2022년 평균(1.1~7.7) 가격은 1,058.78 달러로 2021년 전체 평균 대비 81% 상승, 2020년 평균 대비 174% 상승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14일 개최한 '유가 전문가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반기 국제 유가가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연평균 배럴당 101~108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JP 모건과 스탠더드앤amp;푸어스(S&P) 글로벌은 하반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1~105달러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 '22 7월 가격(7.1~11), '22 가격(1.1~7.11)



방콕 가다랑어 가격 상승 예상

FAD 조업 금지 영향

현재 방콕 가다랑어(1.8kg 이상) 가격은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톤당 1,450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8월 선적분 선구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콕의 한 주요 가공업자는 현재 태국 참치캔 가공공장의 원재료 수요가 상당히 낮고 가다랑어 재고는 중간 수준에서 높은 수준 사이에 있다

고 언급했다. 그는 중서부태평양에서의 FAD 조업 금지가 가격을 다시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서부태평양 선망선은 FAD 조업 금지가 시작된 7월 초에도 여전히 상당한 어획량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곧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12일자



WCPFC 2023년 1월 1일 옵서버 중단 조치 해제

운반선은 과도기 동안 옵서버 승선에 최선의 노력 기울여야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지난 6월 9일 옵서버 승선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로 선망선에 대한 옵서버 커버리지 잠정 중단 조치가 2023년 1월 1일에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WCPFC 문서에 따르면 과도기(6.15~12.31) 동안 회원국은 옵서버를 승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도기 동안 운반선사는 출항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옵서버 제공자에게 전문가를 요청해야

한다. 기국은 옵서버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다가오는 9월 개최되는 기술준수위원회(Technical Compliance Committee) 회의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수집할 것이다.

선박 승선 옵서버 배치 시 비자요건, 검사 기간, 검역 시간/비용, 항공기 빈도 및 가용성을 포함한 입출국 요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23일자



5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어획량 증가

1일 평균 어획량 3년 내 두 번째

올해 5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의 PNA 수역 및 공해 총 어획량은 14만 8,694톤으로 4월 13만 2,530톤 대비 12% 증가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가다랑어 어획량 증가가 이러한 증가를 견인했다. 가다랑어 어획량은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업 일수는 지난달 대비 100일 증가한 약 3,600일이다.

수역별 조업 노력량으로 보면 파푸아뉴기니(PNG) 수역에서 49%가 발생했다. 마이크로네시아 수역은 증가, 나우루·투발루·공해 수역은 감소했다. 어획량으로 보면 PNG 수역에서의 어획량이 총 어획량의

60%를 차지했다.

PNA 수역 및 공해에서 1일 평균 어획량은 41톤으로 2019년 5월 49톤 다음으로 3년 내 두 번째로 많다. 가다랑어 1일 평균 어획량은 36톤으로 평상시 어획량 보다 6~11톤 더 많았다. 어획물은 대부분 방콕으로 운송될 것이지만 일부는 필리핀 제너럴산토스와 동부태평양까지 갈 수 있다.

대형 황다랑어 1일 평균 어획량은 1.6톤으로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황다랑어 치어의 1일 평균 어획량은 2.8톤으로 4월 2.5톤 대비 증가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27일자

중서부태평양 전재량 3년 내 최고치

병목 현상 우려 증가

5월 PNA 항구에서 운반선으로 전채된 참치의 양은 4월보다 2% 증가한 7만 2,484톤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PNG 항구(마당, 라바울)에서의 전채량이 4월 대비 1만 5,000톤 증가한 약 4만 5,000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키리바시 항구, 마셜제도 항구가 그 뒤를 이었다. 마셜제도 마주로항은 낮은 어획량으로 인해 전채량이 1만 3,000톤 감소했다.

대부분의 운반선은 이제 막 방콕에 도착했거나 이동 중이다. 방콕은 최종 제품에 대한 건전한 수요가 있을 시 한 달에 적재 능력이 5,000톤인 대형 운반선을 기준으로 10척, 약 5만톤의 참치를 수용

할 수 있다. 태국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물량은 필리핀 제너럴산토스나 에와도르 만타로 향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태국 참치캔 가공공장의 한 달 평균 가다랑어 사용량은 4만 1,000톤에서 4만 2,000톤 수준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태국 가공업체들 또는 가공업체들의 최종 시장 고객들의 수요가 거의 없다. 참치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바이어가 유리한 바이어 마켓으로 이러한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반전되지 않으면 적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28일자



日 도요스시장 냉동 눈다랑어 kg당 1,234 엔 공급 부족 뚜렷해

일본 도요스시장의 6월 냉동 눈다랑어 대형(40kg 이상)의 상장 수는 9,001 마리(지난해 동기 대비 3% 감소)이다. 5월(상장 수 9,084 마리)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상장 수 1만 마리 미만을 기록했다.

상장된 눈다랑어 중 가장 많은 비중(5,030 마리)을 차지하는 서경·태평양산의 공표 가격 평균은 5월 가격인 kg당 1,201 엔보다 높은 kg당 1,234 엔(지난해

동기 대비 29% 상승)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일본의 7월 입선 예상은 일본 연승선 독항 1,400톤, 운반선 2척 1,650톤으로, 지난달 이월분 3,300톤을 합쳐서 총 6,350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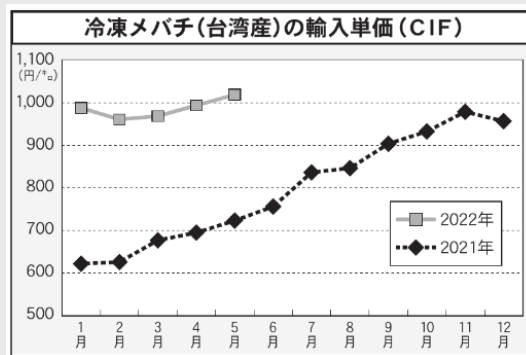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7월 13일자

日 5월 대만산 냉동 눈다랑어 수입단가 1,018 엔 1,000 엔 돌파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참치류의 2022년 5월 수입 실적은 신선·냉장 수입량 334톤(2021년 대비 48% 감소), 수입 금액 5억 1,800만 엔(42% 감소), 냉동 수입량 1만 3,215톤(9% 감소), 수입 금액 151억 9,500만 엔(3% 감소), 가공품 수입량 3,628톤(9% 증가), 수입 금액 26억 2,500만 엔(31% 증가)을 기록했다.

냉동 눈다랑어 가격은 고가 행진을 계속했다. GG(아가미, 내장 제거) 제품 전체의 CIF 기준 수입 단가는 kg당 998 엔이나, 주력인 대만산의 가격은 kg당 1,018 엔으로 마침내 1,000 엔을 돌파했다. 세이셸산과 바누아투산 눈다랑어 수입 단가 또한 1,000 엔을 돌파했다.

냉동 눈다랑어 단가의 가격 지표 역할을 하는 인도양 대만산 일선매(배빼기 거래) 가격은 대형(40kg 이상) 기준 kg당 1,100 엔으로, 5월 대비



50 엔 상승했다.

냉동 눈다랑어 필렛 수입 단가는 kg당 1,832엔(33% 상승)이며, 한국산은 1,942 엔으로 2,000 엔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5월 눈다랑어 총 수입량은 3,638톤(13% 증가)이며 1~5월 수입 누계는 1만 9,304톤(5% 감소)이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7월 7일자



日 2022년 5월 냉동 참치 원어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수입량 412톤

어종·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누계
날개다 랑어	한국	113	6	16	96	44	275
	대만	625	298	49	951	-	1,923
	바누아투	-	1	71	522	436	1,030
	기타	15	15	-	2	26	58
	소계	753	321	137	1,569	506	3,287
황다랑 어	한국	221	210	596	513	539	2,079
	중국	47	284	120	430	550	1,431
	대만	603	1,031	1,318	2,425	1,603	6,980
	필리핀	123	-	131	493	69	816
	바누아투	148	24	72	103	248	595
	피지	23	50	-	-	-	73
	키리바시	29	-	-	-	101	130
	마셜제도	551	-	149	50	51	801
	기타	564	587	568	1,316	410	3,445
	소계	2,309	2,187	2,954	5,329	3,573	16,352
눈다랑 어	한국	11	30	27	113	412	593
	중국	177	467	502	592	339	2,077
	대만	1,372	2,158	2,438	4,084	1,632	11,684
	세이셸	103	874	310	792	526	2,605
	바누아투	138	318	47	629	490	1,622
	기타	135	32	207	110	239	723
	소계	1,937	3,880	3,531	6,319	3,638	19,305
남방참 다랑어	한국	449	-	-	-	-	449
	대만	95	5	-	2	4	106
	소계	544	5	-	2	4	555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7월 7일자



에콰도르 만타 가다랑어 가격 톤당 1,800 달러

산지 어획량 감소했으나 가격 하락

에콰도르 만타의 냉동 가다랑어 1.8kg 이상 원어 현물 가격은 톤당 1,800 달러이다. 지난 2개월 동안 일부 강 시장에서 1,900 달러에 거래된 사례도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1,850 달러 선에서 순항했다.

여러 선주들은 동부태평양 조업이 그리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선망선은 거의 3개월 동안 예년 어획량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선사들은 이윤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일부 선장들은 어획물을 하역한 후 항구를 떠나지 않고 있다. 한편, 1분기에 좋은 생산량을 기록한 참치캔 가공업자들의 원어 수요는 여전히 활발한 편이다.

현재 1,750 달러 선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가격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가공업자들은 아시아 및 인도양 가공업체를 상대로 가격 경쟁력을 얻기 위해 가능한 한 가격을 낮추려 하고 있다.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최고점에 달한 공급량으로 인해 급락했다. 이로 인해 중서부태평양 동부 지역 전채향을

이용하는 아시아 선주들은 특히 만타를 중심으로 대체 목적지를 찾을 전망이다. 높은 연료 가격은 태평양을 횡단해야 하는 운반선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중서부태평양에서 만타로 유입되는 참치 원어는 기존 거래 가격에 추가적인 하락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콰도르의 대형 황다랑어 가격은 현재 1,900 달러이며, FAD로 어획된 치어의 가격은 가다랑어와 동일하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업경비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주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가공업자들은 다음 달 동부태평양 veda(어업 폐쇄 기간)가 시행되기 전까지 최대한 저렴하게 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또 다른 전략은 가격이 최저점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이지만, 7월 29일 시작될 veda는 가공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24일자

WWF,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자원 재평가 추진

7월 중 결과 나올 듯

지난 5월에 개최된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과학자문위원회(SAC)에서 가다랑어 자원이 건강한 상태라고 언급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후 Atuna는 세계자연기금(WWF) 유럽본부에 실제로 가다랑어 자원 재평가를 확인 받았다.

WWF 독일본부의 수산물 담당관 Franck Hollander는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재평가가 7월 정

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참치캔 가공공장은 WWF의 가다랑어 자원 등급이 현재 및 신규 사업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는 MSC 인증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30일자



에콰도르 1분기 참치 수출 2억 9,000만 달러

지난 4년간 최고치

에콰도르의 2022년 1분기 참치 수출이 지난 4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EU의 강한 수요와 미국의 참치캔 및 자숙 로인 조달 증가가 이러한 결과를 이끌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2022년 1분기 참치 수출은 총 6만 6,002톤이다. 이 수치는 참치캔, 파우치, 자숙 로인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지난해 1분기 수출량인 6만 4,706톤에 비해 증가했다.

총 수출 금액은 FOB(본선 인도) 기준 2억 9,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속된다면, 2022년은 에콰도르가 최근 몇 년간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한 연도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치캔 수출량은 4만 9,150톤으로 수출량의 76%를 차지했다. 자숙 로인 수출량은 1만 1,230톤으로 그 다음을 기록했다. 파우치 및 기타 참치 가공 제품

수출량은 4,320톤이었다.

주목할 점은 참치캔 수출이 지난해 대비 2.33% 감소했다는 것이다. 한편, 자숙 로인과 파우치 수출은 각각 11.5%, 28.5% 증가했다.

만타의 가다랑어 원어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참치캔 수출 금액은 지난해 1분기 대비 2.5% 증가했다. 그 외의 참치 관련 제품 수출 금액 또한 증가했다.

EU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에콰도르의 주요 수출 시장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EU는 전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인 51.92%를 차지했다.

미국의 에콰도르산 참치캔 수입 금액은 56% 증가한 3,343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영국의 수입 금액은 절반으로 감소한 1,700만 달러에 그쳤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24일자

IATTC 연례회의의 사무국 권고 문서

소형 선망선 오퍼서 승선, 연승선 오퍼서 커버리지 이행 등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문서 '관리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사무국 권고'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릴 IATTC 100차 연례회의를 앞두고 회람되었다.

문서에 따르면 현재 동부태평양에는 364톤 미만의 소형 선망선에 대한 오퍼서 프로그램이 없다. IATTC 데이터에 따르면 364톤 미만인 선망선은 총 288척 중 81척으로 거의 30%를 차지한다. 사무국은 이러한 소형 선망선에 '샘플링 커버리지 20%'의 오퍼서 프로그램 구축을 권고한다.

문서에서 사무국은 연승어업을 하는 20m 이상 어선에서 최소 20%의 오퍼서 커버리지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오퍼서 커버리지는 5%에 불과하다.

아울러, 사무국은 회원국에 오퍼서가 승선하지 않은 각 항차의 FAD 데이터를 항차 종료 후 가능한 빨리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생분해성 및 얽힘이 없는 FAD를 채택하고 촉진할 것을 권장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4일자



대서양 가다랑어 자원 건강

어획량 2018년 정점 이후 감소

지난 6월 개최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회의에서 제공된 검토 자료에 따르면 대서양 가다랑어 개체군은 건강한 상태이다.

대서양 가다랑어는 동부와 서부에 서식하는 두 종류로 구분된다.

데이터에 따르면 대서양 가다랑어 어획량은 2018년 약 27만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0년 급격히 감소해 22만 5,412톤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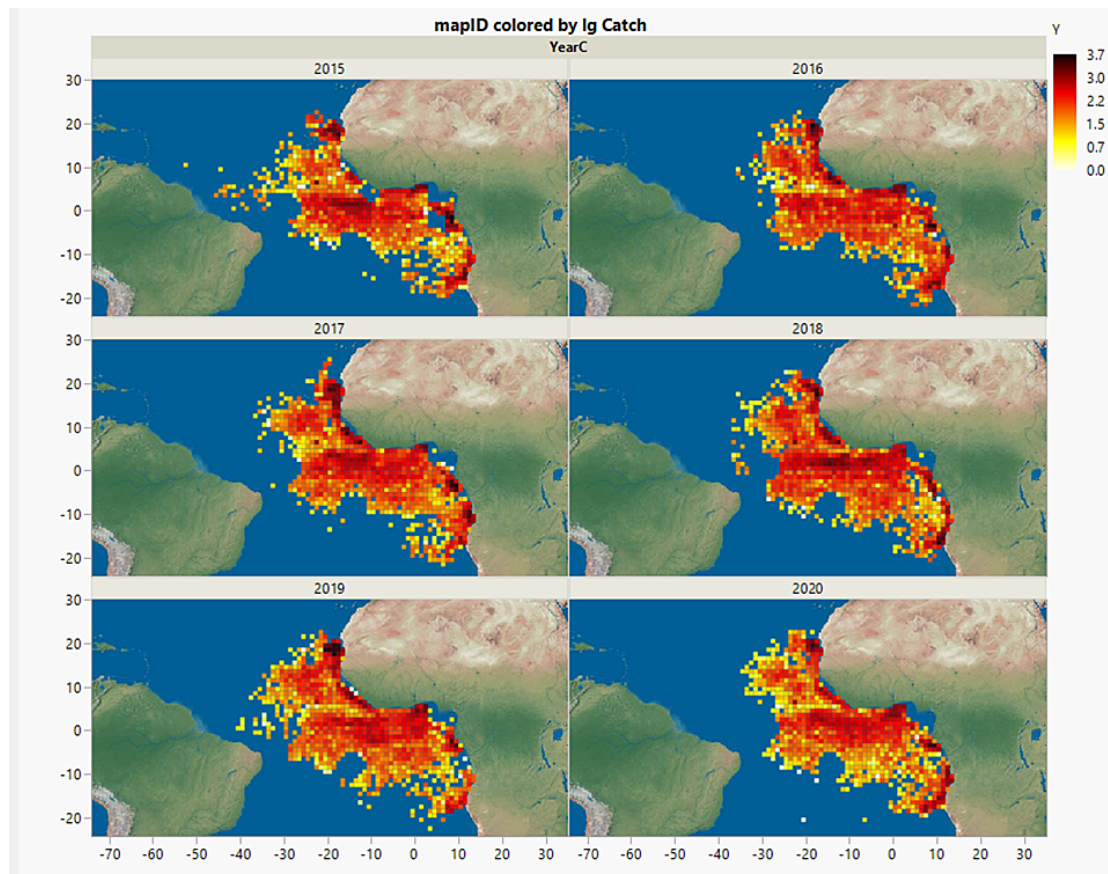
가다랑어 어획량은 대부분 프랑스, 스페인 선망선

FAD 어업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동부 대서양에서 20만 6,589톤을 어획했다.

어획량은 최대지속생산량(MSY) 14만 3,000톤~17만 톤 보다 훨씬 많다.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선망선 조업은 공해와 모리타니아·가봉·코트디부아르 수역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2015년에는 브라질 인근 서부 대서양과 공해에서 조업 노력이 있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7일자





EU 등 ICCAT에 눈다랑어 TAC 확대 요구

7만~7만 7,500톤 등 확대 제안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회원국들은 다가오는 패널1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 Panel 1)에서 대서양 눈다랑어 자원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일부 회원국은 과학 자문에도 불구하고 연안국 어업 발전을 위해 TAC의 최소 20% 확대를 제안했다.

오는 패널1 회기간 회의는 6월 28~30일 동안 포르투갈 São Miguel에서 개최되며, 일부 참가자는 온라인으로 참석한다. 최대 쟁점은 2023년 이후 눈다랑어 TAC이지만, 황다랑어 및 현재의 감시·통제·모니터링 요구 사항에 대한 재검토 등의 의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ICCAT 문서에 따르면 일부 회원국은 TAC의 대폭 확대를 원하고 있다. EU는 2023년부터 TAC를 7만 5,000톤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의 자원 평가와 이에 따른 과학 자문이 자원 상태의 상당한 개선을 보여주며, 높은 확률로 자원을 유지하며 TAC를

안전하게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트디부아르,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모로코, 나이지리아,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등의 연안 개발도상국은 합동 제안을 통해 TAC를 7만톤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또한 해당 요구에 찬성했으나, 자원 유지를 위해 FAD 수를 제한하는 등 유효한 FAD 관리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벨리즈, 퀴라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은 공동 제안을 통해 TAC를 7만 7,500톤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국제채낚기재단(IPNLF)은 지난 주 언론 성명을 통해 ICCAT이 “쿼터 확대 요구 압력에 저항하고 예방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21일

Tri Marine, MSC 인증 눈다랑어 추가 추진

신라교역 6척 포함, 35척 추가도 추진

적합성평가기관 SCS Global Services는 FCF의 인증 범위 확장에 대한 의견통지보고서 초안(ACDR, 총 6단계 중 2단계 초기 보고서)을 발표했다.

Tri Marine은 2016년부터 중서부태평양 및 PNA 수역 황다랑어, 가다랑어 어업에 대한 MSC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인증 어선은 미국 허가 선망선 전체와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대만, 마이크로네시아, 뉴

질랜드, 쿡제도 국적 선망선 일부이다. Tri Marine은 기존 인증에 눈다랑어를 확장하려고 한다.

아울러, 선망선 35척을 추가하려고 한다. 한국 국적으로는 신라교역 선망선 6척이 포함되어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11일자



OPRT, 참치 연승선 노동문제 해결 결의안 채택

각 RFMO에 송부

책임있는 참치어업 추진기구(OPRT)는 참치 연승선에서의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6월 21일에 채택했다.

OPRT는 이 결의안을 RFMO(WCPFC, IOTC, IATTC, ICCAT)에 송부했다. 결의안에는 11가지 주요 사항이 있으며 OPRT 회원들은 이러한 조치들의 채택을 촉구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고용자와 피고용자는 고용계약에 대해 공통된 이해를 갖고, 인력파견업체는 선원에게 고용조건을 설명한다.
2. 선원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제공한다.
3. 인력파견업체에 선원 하선 후 직접 연락해 선원 복지에 대해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4. 외국인을 포함한 선원에게 양질의 식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5. 선상의 기본적 의료조치 및 긴급한 경우 육상병원 이송이 제공되어야 한다.

6. 고용자는 선원의 질병·부상·사망에 대한 보험을 든다.
7. 고용자는 정기적이고 적절한 급여와 제반 비용을 계약에 따라 선원에게 지급한다.
8. 선상에서의 갈등·사고 등이 적절하게 처리되고 보고되어야 한다.
9. 선장 또는 어로장은 선상에서 선원의 사망이나 입원이 발생했을 경우, 선원의 가족 및 고용자에게 보고한다. 특히 사망의 경우, 해당 사건의 취급에 대해 필요에 따라 당국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10. 선원 실종 시 어선은 최소 72시간 동안 수색한다.
11. 가능하면 당국에 다음을 검토하도록 요청한다.
 - (1) 심각하고 항구적인 안전은 개입해서 조사한다.
 - (2) 부적절한 사례 유무를 알기 위해 선원들에게 청취 조사를 행한다.
 - (3)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자국 관할에 존재하는 인력파견업체의 활동을 감독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30일자,
OPRT 공식 발표

日 이토추상사, 중서부태평양 참치 선망 MSC 획득

사조그룹 선망선 6척 대상

일본 이토추상사가 해양관리협의회(MSC)의 가다랑어·황다랑어 MSC 인증을 취득했다.

이번 인증의 대상이 된 선박은 이토추상사와 계약한 사조그룹 참치 선망선 6척(사조알렉산드리아, 콜럼비아, 콘코디아, 패밀리아, 포세도니아, 포텐시아)

으로, 중서부태평양에서 가다랑어와 황다랑어를 주로 어획한다. 일본 기업이 해외 선박을 통해 어업 인증을 취득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7월 12일자



EU 1분기 참치 원어 수입량 38% 감소

자속 로인 수입 증가, 원어보다 로인 수입 우세

올해 1분기 EU의 주요 상업용 참치 5개종 냉동 원어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37% 감소한 2만 8,413톤에 그쳤다. CFR 기준 톤당 평균 수입 가격은 2,389톤으로 19% 상승했다.

원산지별로 보면 비EU국 원산지 수입량이 38% 감소했다. 퀴라소산과 세네갈산을 제외한 비EU국 원산지 대부분이 대폭 감소했다.

올해 1분기 퀴라소산 수입량은 톤당 평균 가격이 56%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86% 증가한 2,152톤이다. 퀴라소에서는 유럽 선주(주로 스페인) 소유 선망선들이 조업하고 있다. 생산 물량은 주로 스페인으로 보내진다.

세네갈산 수입량은 150% 증가한 1,449톤을 기록했다. 톤당 수입가격은 엘살바도르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1,628 유로이다.

한국산은 77%(3,164톤) 감소해 968톤에 그쳤다. 톤당 평균 수입 가격은 2,916 유로이다. 카보베르데산은 2,321톤 감소해 2톤에 불과했다.

EU국 원산지 수입량은 31% 감소했다. 스페인산과 프랑스산 수입량이 크게 감소했다.

반면, EU의 자속 로인 수입량은 7만 3,898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대부분은 자율할당관세(ATQ)를 활용해 수입되었다. 지난해 자속 로인 수입이 역사적 정점에 도달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어보다 자속 로인을 이용하는 가공업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16일자

EU 1분기 눈다랑어 원어 수입 15% 감소

5년 동안 지속 감소

올해 1분기 EU의 눈다랑어 원어 수입량은 2,946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수입량은 2018년(8,000톤) 이후 감소 추세이다. 수입 평균가격은 톤당 1,888 유로로 2019년에 이어 5년 내 두 번째로 높았다.

원산지로 보면 비EU국산 수입은 13% 감소했다. 엘살바도르산 677톤(118% 증가), 코트디부아르산

500톤(100% 증가), 퀴라소산 451톤(1,082% 증가), 과테말라산 376톤(39% 감소), 세네갈산 275톤(823% 증가), 세이셸산 182톤(82% 감소) 순이다.

EU국산 수입량은 31% 감소했다. 스페인산 208톤(40% 감소), 포르투갈산 105톤(20% 증가), 프랑스산 13톤(66% 감소) 순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11일자



EU 1분기 가다랑어 원어 수입량 44% 감소

비EU국 원산지 수입량 54% 감소

2021년 1분기 EU 가다랑어 원어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44% 감소한 7,419톤을 기록했다. 주요 참치 5개종 수입 중 가다랑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26%이다. 평균 수입 가격은 2,839 유로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 상승했다.

원산지로 보면 비EU국 원산지 수입량이 54% 감소했다. 세네갈산, 쿼소산, 벨리즈산을 제외한 주요국 원산지 수입량이 모두 감소했다. 한국산 수입은 2021년 1분기 1,024톤이었으나 올해 1분기 '0'를 기록했다.

엘살바도르산 수입량은 1,618톤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동기 대비 43%(1,618톤) 감소했다. 엘살바도르

선망선은 대부분 유럽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어획물을 스페인에 공급하고 있다. 과테말라산은 806톤, 세이셸산은 426톤으로 각각 62%, 77% 감소했다.

EU국 원산지 수입량은 3% 감소했다. 스페인산이 13% 증가한 2,443톤을 기록했다. 스페인산 톤당 수입 가격은 1,358 유로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산 수입량은 3년 연속 감소했고 올해 23톤에 불과했다. 프랑스산 수입량 감소는 높은 가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산 수입 가격은 톤당 1,616 유로로 스페인보다 258 유로 더 높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17일자

1분기 EU 황다랑어 수입량 31% 감소

톤당 평균 수입가격 20% 상승

올해 1분기 EU의 황다랑어 원어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31% 감소한 1만 5,484톤이다. 황다랑어 수입금액은 4,410만 유로로 금액 기준 주요 상업용 참치 5개종 수입에서 55%를 차지했다.

수입량 감소 원인 중 하나는 가격일 수 있다. 톤당 평균 수입가격은 지난해 동기 대비 20% 상승한 2,849 유로로 5년 내 가장 높았다.

비EU국산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8% 감소한 1만 3,491톤을 기록했다. 파푸아뉴기니산(697%), 세네갈산(90%), 쿼소산(39%)을 제외한 대부분이 감소했다. 한국(-71%), 필리핀(-52%), 베트남(-45%) 등 아시아 국가산은 모두 감소했다. 필리핀

은 2020년 1분기 대비 73% 감소했다. 올해 1분기 베트남산 자숙 로인 수출이 2,000톤 이상 증가한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톤당 평균 수입가격은 베트남산이 4,182 유로로 가장 높았다.

세이셸산 수입량은 4% 감소한 2,102톤으로 가장 많았다. 세이셸산 톤당 평균 수입가격은 36% 상승했다. 멕시코산 수입량은 49% 감소했다.

EU국산 수입량은 47% 감소했다. 스페인산(-56%), 프랑스산(-51%) 수입량이 대폭 감소한 반면, 포르투갈산 수입량이 829% 증가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23일자



세이셸-EU, 수산협정 6년 갱신

세이셸 선망선 마요트에서 운항 가능

EU와 세이셸 대표단의 정부간 수산협정 재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세이셸 국적 선망선단이 마요트(프랑스령) 수역에서 계속 조업할 수 있게 되었다고 Seychelles News Agency가 보도했다.

이 협정에 따라 세이셸 국적의 어선 8척이 마요트 연안 24해리 이원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협정은 상호 협정이기 때문에, 마요트 국적선 또한 세이셸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다.

세이셸 국적선단은 첫 100톤의 참치 어획물에 대해 13만 5,000 유로를 선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추가 어획물 1톤당 135 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Jean Franois Ferrari 세이셸 수산장관은 “마요트

수역에서 조업하는 세이셸 국적선도 마요트 수역 보호 지원 환경기금에 모금하도록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세이셸 어선의 참치 어획 1톤당 2.25 유로가 환경 펀드에 모금된다.

세이셸과 마요트간의 협약은 2014년 이후 두 번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양측은 재협상을 제때 마무리 짓지 못했다.

협정 발효 시기가 2023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6월 14일자

EU-카보베르데 수산협정 5년 갱신

선망선 28척, 채낚기 14척, 연승선 27척 입어 가능

EU 의회는 최근 카보베르데와 지속가능한 수산업 협력협정(SFPA) 갱신을 승인했다. EU 국적 어선은 2007년부터 카보베르데 영해에서 조업해왔다.

이번 협정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유지된다. 협정 갱신 기간이 지났었지만 그 동안 EU 어선은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스페인·포르투갈·프랑스 국적 선망선 28척, 채낚기(pole-and-line) 14척, 연승선 27척이 카보베르데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다.

어선들은 첫 2년 동안 톤당 55 유로, 이후에는 톤

당 65 유로를 카보베르데에 지불해야 된다. 또한 선주들은 어업 허가를 위해 연간 60만 유로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EU는 계약 첫 2년 동안 매년 카보베르데에 55만 5,000 유로, 나머지 기간 동안 50만 유로를 지원한다. 이 지원액은 대부분 통제·감시 강화 등 카보베르데의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 촉진과 지역 어업 공동체 지원에 사용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7일자



EU 수산물 소비 감소

양과 금액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감소

EU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월 수산물 가계 소비는 지난해 동월에 비해 양과 금액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아일랜드만이 새우·고등어 소비 증가로 금액 기준 5% 증가했으나 양은 감소했다.

소비량으로 보면 모든 국가가 감소했다. 헝가리 -44%, 포르투갈 -34%, 스웨덴 -31%, 아일랜드 -24%, 스페인 -21%, 폴란드 -20%, 독일 -19%, 이탈리아·덴마크 -17%, 프랑스 -13%, 네덜란드 -8%이다.

어종별로 보면 연어는 67억 유로로 9% 증가, 갑각류는 48억 유로로 19% 증가, 저서어류는 41억 유로

로 4% 감소했다. 연어·갑각류·저서어류는 수입에서 60%를 차지했다. 참치 및 참치 유사종 수입액은 7% 감소했다. 가다랑어 수입액이 11% 감소하며 모든 수산물 품목 중 가장 크게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량을 보면 연어 위주의 노르웨이가 68억 유로로 6% 증가, 문어 위주의 모로코가 17억 유로로 28% 증가, 영국이 15억 유로로 14% 감소, 참치·새우 위주의 에콰도르가 14억 유로로 13% 증가했다. 그 뒤를 잇는 중국은 10% 감소, 아이슬란드는 15% 증가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21일자

EU 선망선단, 유가 급등으로 어두운 전망 직면

향후 3~5년간 석유 시장 어려워

지난 3월, 스페인 어업단체인 CEPESCA와 FNCP는 스페인 수산청장과 가진 긴급 면담에서 보조금 용자 및 어패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를 요청했다. 이들은 연료비가 선망선 조업경비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호소했다.

유럽 4개국(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항구의 선박용 경유(MGO) 가격을 정리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5월 톤당 200 유로로 최저점을 형성한 이후 상승해, 2022년 5월 톤당 1,000 유로를 기록했다. MGO 가격은 올해 1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했고, 특히 올해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계속해서 상승했다.

2022년 5월 MGO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6% 상승했다. 이는 중간가격 기준 지난해 5월 대비 125%나 상승한 수치이다. 이탈리아 안코나항과 리보르노항의 MGO 가격은 전월 대비 8%나 급등한 톤당 1,030 유로를 기록했다. 스페인 비고항과 아코루냐항에서는 톤당 약 1,040 유로이며, 프랑스 항구에서는 톤당 1,020 유로이다.

선주들은 비용 부담이 완화되지 않으면 조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거듭 호소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22일자



1분기 미국 가다랑어 참치캔 수입량 10% 증가 톤당 평균 수입가격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

올해 1분기 미국의 가다랑어 참치캔 수입량은 4,009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2020년 이후 2년 연속 증가이다.

톤당 수입가격은 지난해 동기 대비 6% 하락한 2,684달러로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입량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는 수입가격 하락이다.

2019년 미국이 부과한 관세로 타격을 입은 중국산의

올해 1분기 수입량은 1,775톤으로 78% 증가했다. 이는 3,000톤 이상이 수입된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톤당 평균 수입가격은 2,362톤으로 매우 낮았다.

반면, 베트남산 수입량은 28% 감소했다. 지난해 베트남산은 중국산이 잃은 몫을 차지했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23일자

미국 1분기 참치 파우치 수입량 10% 증가 세네갈산 지속 증가

올해 1분기 미국의 참치 파우치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0% 증가한 1만 2,572톤으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1분기를 보면 2019년이 현재 수준과 비슷하고 2020년 급감한 이후 2021, 2022년에 증가했다.

FOB 기준 톤당 수입 가격은 5,305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 하락했다.

국가별로 보면 태국산이 지난해 동기 대비 34% 증가한 4,442톤으로 가장 많이 수입되었다. 2021년 1분기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일부 회복했다. 톤당 수입 가격은 5,199 달러로 2% 상승했다.

2번째로 많이 수입된 에콰도르산은 톤당 가격이 7%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은 6% 증가한 3,639톤을 기록했다.

3번째 세네갈산은 동원산업의 스타키스트 참치캔 가공공장 스카사(S.C.A SA)가 생산한 제품이다. 1분기 기준 2020년 1,206톤, 2021년 2,660톤, 2022년 3,355톤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톤당 가격은 5,779 달러로 가장 높았다.

필리핀 산은 71% 감소한 356톤에 그쳤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15일자



미국 슈퍼마켓 체인 Hy-Vee, 참치 공급어선 공개 블랙리스트와 상호 참조 가능

미국 중서부 슈퍼마켓 체인 Hy-Vee와 유통 회사 Perishable Distributors of Iowa는 올해 4월에 신선·냉동·자사 브랜드 통조림 참치 공급 관련 전체 어선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비영리 지속가능 수산물 컨설팅 회사인 FishWis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졌다.

FishWise와 Hy-Vee는 “인권 또는 노동권 문제와 직

접적으로 연관된 선박은 식별되지 않았다”며 “자사 브랜드 참치캔 공급 어선이 이러한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장할 수 없지만 모든 연승·선망 어선이 공개적으로 식별되고 어선 블랙리스트와 상호 참조될 수 있다는 것은 만족스러운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6월 20일자



베트남 2022년 1분기 참치 수출 72% 증가 2억 5,900만 달러

베트남 국영통신사인 Vietnam Plus가 베트남수산물수출가공협회(VASEP)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의 2022년 1분기 참치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72% 증가한 2억 5,900만 달러로,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 1.6배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국가에 대한 수출량

은 3월에 49% 증가했다.

캐나다는 베트남의 신흥 수출 시장이다. 베트남은 캐나다에 1분기 동안 약 1,400만 달러 상당의 참치를 수출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70% 증가한 수치이며 2019년 동기 수출량의 약 2배이다. 캐나다는 1분기 동안 베트남 전체 참치 수출의 5%를 차지했다. 베트남은 캐나다에서 태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참치 공급국이 되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6월 22일자



하와이 참치연승, EPO 눈다랑어 MSC 평가 실패

WCPO 눈다랑어·황다랑어, EPO 황다랑어 기준점 이상

적합성평가기관 SCS Control Union(UK) Limited는 하와이연승협회(Hawaii Longline Association)의 해양관리협의회(MSC) 평가에 대한 공개 의견 초안 보고서(PCDR)를 발표했다.

중서부태평양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동부태평양 황다랑어에 대한 점수는 모두 80점 이상이였다. 동부태평양 눈다랑어는 원칙1에서 70.8점으로 불합격 점수를 받았다. 최대지속생산량(MSY)과 일치하는 수준이 아니어서 낙제점을 받았다. 적합성평가기관은 어획전략이 없기

때문에 지정된 기간 내에 눈다랑어 자원 재건 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19개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4개는 구속력이 없다. 대부분의 필수 조건은 어획전략과 어획 통제규칙에 관련된 것이다. 원칙2와 관련된 것은 지속가능한 어업에서 조달된 미끼, 검은발알바트로스와 같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혼획 등이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30일자

FCF 중서부태평양 선망어업 MSC 인증 획득

나우루 국적 선망선 20척

대만 참치 무역업체 FCF는 7월 7일 나우루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선망어업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

대상 어선은 나우루 국적 선망선 20척이다. 해당 어선의 조업 구역은 나우루 EEZ를 포함한 PNA 구역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11일자

TUNACONS 황다랑어 MSC 인증 획득

동부태평양 선망선 47척

TUNACONS(에콰도르 참치 선망선사들이 MSC 인증을 위해 공동 설립한 NGO)가 동부태평양 황다랑어 선망 어업에 대한 MSC 인증을 획득했다. 대상 선박은 선망선 47척이다.

TUNACONS는 황다랑어 인증은 시작에 불과하며 가다랑어, 눈다랑어 인증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12일자



볼튼 책임있는 참치 조달 69%

MSC 10%

이탈리아 참치 강자인 Bolton Food사는 2024년까지 책임있게 어획된 참치 조달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Bolton에 따르면 Rio Mare, Saupiquet, Isabel, Palmera, and Cuca 브랜드에 사용되는 참치의 69%가 MSC 인증 어업(10%) 또는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FIP 관련 어업(59%)에서 어획되었다.

볼튼이 가공한 참치는 선망선 어획물이 87%로 대부분이고 10%가 채낚기(pole-and-liners) 어획물이다. 대부분이 동부태평양과 중서부태평양에서 어획되었다. 어

종별로 보면 가다랑어가 60%, 황다랑어가 30%이다.

Bolton의 브랜드는 대부분 Rio Mare가 시장을 주도하는 이탈리아(52%)에서 판매된다. 독일 12%, 스페인 6%, 독일 5%가 뒤를 잇는다.

Bolton 조달 참치의 90% 이상이 어업 자회사인 Tri Marine에서 공급되었다. Bolton은 Tri Marine으로부터 매년 50만톤 정도 공급 받으며 15%를 가공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12일자



스페인 Frim사 황다랑어 스테이크 공장 신설

참치 스테이크 성장 여지 많아

스페인 참치 가공회사인 Frim은 2,200만 유로(2,310만 달러)를 투자해 한 달 최대 600톤의 황다랑어 스테이크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건설했다.

Frim사는 건강식품 트렌드와 아시아 스타일 요리의 인기가 매출 성장을 견인함에 따라 새로운 공장이 유럽의 신선·냉동 참치 스테이크 수요에 부응할 것이며 새로운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Frim사 Mugica 대표는 “참치 스테이크 시장은 매

년 10% 정도씩 성장하고 있다”며 “유럽 참치 스테이크 시장 규모는 원어 기준 15~20만톤이며 우리는 3만톤을 수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아직 성장 여지가 크며 올해 우리의 매출 목표는 2억 유로, 5개년 계획은 3억 유로”라며 “이 중 대부분의 매출은 참치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6월 20일자



대왕오징어 가격 상승세

日 kg당 약 300엔 중반

일본 일간수산경제신문에 따르면 남미 수역에서 어획되는 대왕오징어의 어획 저조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지 상사 관계자에 따르면 수입 경비가 상승했고, 일본의 경우 특히 엔화 약세로 인해 향후 영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상사 관계자에 따르면 대왕오징어가 주로 어획되는 페루 해역의 이번 분기 어획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절반 이하로 극히 부진하다. 관계자는 “연초에는 (어획량이) 좋았지만 1월 하순부터 악화되었다. 여기에 일본에서 냉동용으로 사용 가능한 품질의 어획물이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현지 가격이 매우 강세를 보여 코로나19로 인해 비교적 약세였던 지난해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칠레의 조업 상황은 초반 부진을 벗어나 최근 1~2개월간 호전되었다. 칠레는 원래 페루보다 생산량이 적고 소형선으로 조업하기 때문에 날씨에 좌우되기 쉬워 안정성

에 문제가 있다. 현지 가격도 페루의 흥어로 인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급 불안을 해소할 정도는 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공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선단의 경우 “어획 상황은 그럭저럭이나, 페루 흥어의 영향으로 인해 현지 가격은 상승 기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국내 가격은 엔 약세 및 고유가 등 경비 상승이 수입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필렛 가격이 kg당 300엔 대 중반, 부산물인 오징어 귀(耳)가 200엔 대 중반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60%, 40% 상승했다. 상사 관계자는 “일본은 아직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부터”라고 말했다.

일본의 남미산 대왕오징어 지난해 수입량은 페루산, 칠레산을 합쳐 약 2만 7,700톤으로 추산된다. 이는 일본 냉동오징어 수입량의 약 30%이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6월 16일

日, 대왕오징어 지느러미(귀) 수입 증가

저렴한 가격, 활용도 증가 등 원인

일본에서 오징어 가공 원료로 널리 사용되는 아메리카 대왕오징어는 본래 대부분 필렛 형태로 수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지느러미(귀) 수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 활용하기 편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되며, 지느러미를 사용한 상품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또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4년 일본의 오징어 지느러미 제품 수입 비율은 전체의 27%로 필렛에 비해 비중이 매우 적었다(필렛

45%). 그러나 지느러미 제품 수입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해 2016년 30%, 2018년 40%를 기록했지만 주력은 여전히 필렛이었다. 2019~2020년의 지느러미 제품 수입 비중은 40%대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단가가 kg당 200 엔까지 하락하면서 점유율이 급증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7월 7일자



러시아 명태 1~6월 생산량 118만톤

2022년 총 180만톤 어획 예상

러시아 명태어업자협회(PCA)에 따르면 러시아 어업자의 2022년 1~6월 명태 생산량은 118만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생산량 및 TAC를 감안하면, 연간 총생산량은 176~180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월 오희츠크해 조업구역에서는 79만 4,000톤(지난해 동기 대비 1% 증가)이 어획되었다. 하위 구역인 북오희츠크해에서는 30만톤(7% 감소)이 어획되었다. 오희츠크해 조업구역의 올해 TAC 소화율은 95~9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15일 조업이 시작된 서베링해 조업구역의 6월 말 시점 생산량은 14만 2,000톤으로 지난해 동

기 대비 81% 급증했다.

페트로파블로스크-코맨도르스크 조업구역과 쿠릴 열도의 어획량은 14만 3,700톤으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했다.

일본과 자원분포가 겹치는 남쿠릴 조업구역(TAC 13만 5,000톤) 생산량은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찬가지로 일본과 자원분포가 겹치는 동사할린 조업구역(TAC 12만 2,700톤)의 어획량은 6만 5,000톤으로 순조로운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7월 11·12일자, Intrafish, 7월 12일자

러시아 흰살생선, 제재 조치에도 시장에 나올 것

대체 어려움

수산업계 임원들은 북대서양수산물포럼(NASF)에서 러시아 흰살생선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제재 속에서도 결국 시장에 나올 길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르웨이 소재 대형 가공업체인 Insula의 최고 운영책임자 Morten Jensen은 포럼 흰살생선 회담에서 “러시아산 흰살생선에 대한 제재 우려가 있으나, 여전히 계속 어획될 것이며 시장에 나올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국 최대 가공업체인 Young's Seafood의 대표 Simon Smith 또한 이 의견에 동의하며 “러시아산 흰살생선은 쉽게 대체될 수 없다. 러시아산

흰살생선은 결국 시장에 나올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 여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영국은 러시아산 흰살생선에 3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Smith는 관세가 시행될 경우 구체적 여파에 대해 “투입 가격이 기존과 같은지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Smith는 또한 중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흰살생선의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대단히 많은 대화가 오가고 있다”라고 답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6월 27일자



러시아, 베링해 명태 쿼터 36% 증가 일방적 추진 약 15만톤 규모

러시아 수산청이 일방적으로 베링해 명태 쿼터를 36%(약 15만톤) 증가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청은 서베링해 조업수역 명태 쿼터를 55만 9,000톤으로 36% 늘리고, Chukotka 조업수역 명태 쿼터를 2,000톤 증가한 7,000톤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한 러시아연방수산해양연구소(TINRO)의 러시아 과학자들은 미국과 러시아 간 베링해 명태에 대한 자원 공유 협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쿼터 증가 제안이 2020년과 그 이전에 실시된 서베링해·동캅차가 자원 조사 결과 및 선상 옵서버들의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양국간의 연구 공유 지침(guidance of shared research) 하에 베링해 내 각자의 관할권에서 조업하고 있다. 관할권은 1990

년 양국 책임자가 체결한 협정으로 정해져 오늘까지 이어져왔다. 현재 러시아는 베링해로 간주되는 수역 면적의 약 20%에 대한 조업 권리를, 미국은 80%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양국 간에는 자원 공유 협정이 없다. 대신 양국 과학자들은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TINRO가 지속가능한 수준의 TAC를 권장할 수 있도록 자원 현황 정보 및 연구를 공유한다.

러시아 업계 소식통들은 베링해 명태 쿼터가 15만톤 증가하면 많은 기업들이 3,000~1만톤의 쿼터를 추가적으로 얻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러시아의 2022년 서베링해 조업수역 명태 TAC는 40만 9,700톤으로 설정되었으며, 카라긴스키 조업수역 TAC는 6만 700톤, Chukotka 조업수역 TAC는 5,000톤으로 설정되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6월 24일자

26주차 러시아 냉동 어류 가격

북서부·극동 견고, 중부 약세

26주차 러시아 냉동 어류 가격은 북서부·극동 지역에서 견고한 흐름을 보인 반면, 중부 지역에 서 약세를 보였다.

극동 지역 핑크연어, 명태, 태평양 청어, 태평양 대구 가격은 금주 각각 kg당 145-165, 80-110, 55-75, 180-210 루블로 지난주 가격대를 유지했다.

북서부 지역의 경우, 대구, 연어, 청어 가격은 이

번주 각각 kg당 210-230, 170-205, 70-95 루블로 지난주 가격대를 유지했다.

중부 지역의 경우, 연어, 명태, 대서양고등어 가격은 지난주 각각 kg당 145-190, 95-120, 140-175 루블이었으나 이번주 각각 kg당 140-190, 90-120, 140-170 루블로 하락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7월 7일자



러시아, 바렌츠해 경계선 획정조약 파기 검토

노르웨이의 러시아 제재 영향

러시아 하원이 노르웨이와 2010년 체결한 바렌츠해 경계선 획정 조약의 파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하일 마트베예프 러시아 하원의원은 노르웨이가 러시아 기업들 화물의 스피츠베르겐(스발바르제도)에 위치한 노르웨이 섬)행 운송을 제지하자 이에 대응해 바렌츠해 경계선 획정 조약의 파기를 제안했다.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이 이를 지지하며 외교위원회에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러시아와 노르웨이는 40년간 바렌츠해의 경계선을 두고 대립해 왔으나, 2010년 9월 “바렌츠해와 북빙양의 해역 획정과 협력에 관한 조약”에 조인해, 분쟁 지대였던 해역의 면적을 거의 등분하는 방식으로

로 타협했다.

스발바르제도에서는 1920년 스발바르조약에 따라 어업, 광공업, 상업, 기타 활동에 관한 각 당사국의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해당 제도는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노르웨이-러시아 양국의 어업관리권에 관한 대립이 계속된 바 있다.

노르웨이 외교당국은 러시아 측의 조약 파기 검토에 대해 해당 조약에 종료 조항이 없으며 무기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7월 7일자

러시아 4월까지 수산물 수출량 20% 증가

수출금액 기준 30%

러시아연방 통계청(Rosstat)의 잠정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러시아의 수산물 수출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9.7% 증가한 73만 9,400톤이다. 수출금액은 30.8% 증가한 19억 달러를 기록했다.

어류 필렛, 어육(민스 포함) 수출이 72.2% 급증한 8만 4,400톤에 달했다.

냉동 어류 수출은 17% 증가한 61만 6,400톤이며, 선어는 27.8% 증가한 2,300톤, 건어물은 52.6% 증가한 2,900톤이다.

갑각류 수출은 11.5% 감소한 1만 7,700톤, 즉

석 및 통조림 제품은 16% 감소한 7,900톤을 기록했다.

반면, 수산물 수입액은 5억 8,380만 달러로 22.6% 감소했다. 냉동 어류 수입량은 22% 감소한 7만 4,600톤이다.

러시아 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5월 31일까지 러시아 전체 수산물 어획량은 190만톤에 달한다. 명태 어획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만 6,000톤 증가한 101만톤이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6월 15일자



알래스카 명태 B시즌 시작

필렛 가격 톤당 5,000 달러 이상 전망

알래스카 명태 B시즌이 지난 6월 10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최고가를 기록 중인 명태 가격의 고가 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알래스카 명태 생산업자들에 따르면 명태 PBO(가시제거) 필렛 블록 가격은 톤당 5,000 달러 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알래스카에서 다수의 명태 어선을 보유한 한 회사 임원은 "B시즌 명태 가격이 5,000 달러를 넘어 5,100 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으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는 우선 러시아산 흰살생선 제재로 인한 공급망 고갈이 지목되었다. 미국 알래스카명태생산자협회(GAPP)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3월 사이 미국은 필렛 5만 7,000톤을 수입했으나 4월에는 제로(0)였다.

전반적인 어획량은 적은 편이지만, GAPP 경제 분

석관 Ron Rogness는 올해 A시즌 가공업자들의 냉동 제품 수율(yield, 손질 후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부위의 비율)이 지난해 대비 11% 높은 31.4%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올해 선단이 어획한 명태 크기는 개체당 평균 700~800g 정도로, 연육(surimi) 대신 PBO 또는 딥스킨(껍질, 지방층 제거) 필렛 생산량을 증가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명태 어획물 크기가 작아 가공업체들이 부가가치 필렛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했고, 대신 연육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6월 3일까지 진행된 딥스킨 필렛 생산량은 2021년 A시즌 최종 생산량과 거의 비슷했다. PBO 필렛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11% 이상 증가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6월 10일자

러시아 정부 투자쿼터 2년 연장

무역 수입 루블화 전환 의무 폐지, 지원금 배정

러시아 정부는 투자쿼터 프로그램에 포함된 선박 건조 요건의 2년 연장을 포함해 여러 어업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러시아는 또한 수출업자들이 해외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루블화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했다. 아울러, 농업 및 어업 부문에 대한 직접적 지원금으로 1,530억 루블(27억 달러)을 배

정했다.

투자쿼터 프로그램은 가공 시설 또는 어선 투자 실시 기업에 그 대가로 청어, 명태, 대구 등 어종에 대한 어업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선의 진수 또는 건조가 지연되면 벌금이 부과되고 쿼터에 대한 접근이 늦어지게 된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6월 15일자



日 2022년 3월 꽁치 재고량 5,730톤

4월 시점 최저 재고량 기록 전망

일본 농림수산업성이 발표한 냉동수산물 재고량 (2022년 3월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요 냉동창고의 냉동 꽁치 3월말 시점 재고는 5,730톤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40% 감소했다. 꽁치 재고가 6,000톤 미만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월간 입고량은 637톤으로 19% 증가했고, 월간 출고

량은 1,433톤으로 14% 증가했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2022년 4월 시점 꽁치 수입이 제로(0)였기 때문에, 4월 말 재고량 통계가 발표된다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6월 16일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2	6,987	6,526	5,730			
2021	8,749	11,398	11,028	10,236	9,559	7,804
2020	14,228	12,950	11,891	10,601	9,902	7,893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						
2021	6,977	9,193	5,759	5,577	7,265	6,986
2020	7,270	6,900	6,089	6,994	8,987	9,248

日 꽁치붕수망어업 8월 10일부터

러시아 수역 조업은 미정

일본 전국꽁치붕수망어업협동조합은 지난 6월 28일 이사회를 개최해 올해 꽁치붕수망어선 출어일을 결정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톤 이상~20톤 미만 어선은 8월 10일, 20톤 이상~100톤 미만은 15일, 100톤 이상은 20일부터 조업을 시작한다.

한편, 러시아 수역 조업 시작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조합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 감독관선의 경

비를 송금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조합은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인 9월 1일 입어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러시아 수역 조업을 향후에도 계속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협상을 통해 러시아 수역에서 5만 6,424톤의 쿼터를 확보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6월 30일자



바이든, IUU 대응 국가안보각서 서명

강제노동 방지·유해 어업관행 관리 취지 표명

현지시각 6월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해양 보호 일환으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활동에 대응하고 이와 관련된 해로운 어업 관행을 관리하려는 취지의 국가안보각서(NSM)에 서명했다.

이번 NSM은 원양어선 관련 노동 유린과 해산물 공급망 내 강제노동 문제 등 IUU 어업 관련 문제 대응을 행정부 정책으로 규정하고, 어업 분야에서 노동권 및 인권, 근본적 자유 증진에 전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노동자 중심적 정책을 통한 노동권 및 인권, 근본적인 자유 증진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IUU 어업 주의 환기 ▲IUU 어업이 연루된 상품 시장 내 제약 등 윤리적 어업 상대 인센티브 강화 등을 다룬다.

구체적인 각국과의 행동 구상도 발표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캐나다 및 영국과 함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감시, 통제, 감독을 개선하고 선단 및 수산물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IUU 어업 행동 동맹'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대표적인 불법 조업국 가운데 하나"라며 "중국이 불법 조업 행위 근절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불법조업 활동에 맞서 싸우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하며 이를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조업이나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7월 말까지 자국 21개 연방기관으로 구성된 기관간실무그룹(IWF) 차원에서 IUU 어업 대항 국가 5개년 전략도 발표할 예정으로, 에콰도르·파나마·세네갈·대만·베트남 등 파트너들과 이에 관련해 협력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이들 5개국은 불법조업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국가"라고 설명했지만 이 협정을 통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이 중국 불법조업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은 "대만 해협은 국제수역이 아니다"라며 미국 선박의 통과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호주·인도·일본 4개국의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 국가와도 협력할 전망이다.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태평양 섬 국가 해양 안보 및 해양 영유권 등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국무부 차원에서 이들 국가와 협력한다는 것이다.

이번 NSM과 함께,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는 IUU 어업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 정의를 유엔 식량 농업기구(FAO)의 정의와 일치시키는, 수산업에서의 강제노동 및 타 노동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안된 규칙을 발표했다. 한 관료에 따르면 이 제안을 통해 미국 관료들은 강제노동 및 미국과 타국간의 유사한 어업법을 모두 포괄하는 정의(definition)를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

NOAA는 또한 항만국가조치협정(Port State Measures Agreement)의 완전 이행을 위해 외국 어선들이 미국 입항을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정보 범위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안된 규칙을 통해 당국은 입항 선박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여 IUU 조업 여부를 판단하고 입항 거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기사 출처: 로이터, Seafoodsource, 2022년 6월 27일자



인도네시아 정부, 외국어선 승선자 보호규정 발표

허가서 공식 발급·단체교섭·이주노동자 DB 구축 등 포함

인도네시아가 해외 상업 어선에 승선한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 규정을 발표했다고 글로벌 환경 뉴스 전문 매체 Mongabay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6월 8일 비준한 이 규정이 인도네시아 이주 선원 채용 및 배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노동권을 더 잘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에 도입된 핵심적인 변화로는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가 인도네시아 선원 송출업체의 지원 외국 근무자(candidate migrant workers) 배정에 대한 허가 발급 직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 규정에는 이주 노동자를 위한 노사단체 협약의 도입, 관련 정부기관 간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노동협약(C-188)에 근거한 작업 계획 및 조건 기준도 포함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5월 31일 전(前) 외국인 선원 3명이 정부에 제기한 소송에 이은 것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6월 15일자, Mongabay, 2022년 6월 14일자

FCF, 인니 송출업체에 채용 프로그램 도입 추진

Key Traceability와 협력

대만 선사 FCF는 인도네시아어업인협회(INFISA)와 9개 현지 선원 송출업체(recruitment agencies)를 대상으로 책임있는 채용 프로젝트 훈련 세션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인도네시아 뜨갈(Tegal)시에서 이틀에 걸쳐 개최된 이 세션은 원양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채용 기준을 구축하기 위한 FCF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FCF는 올해 INFISA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선원 송출업체에 책임있는 채용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FCF는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Key Traceability(독립 감사·컨설팅 회사)와 협력했다.

Key Traceability 인도네시아의 Dani Rahmat 대표는 INFISA가 선원 송출업체들이 향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다양한 요구사항의 구현, 모니터링 및 개선 프로토콜, 관리 매커니즘 등 책임있는 채용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아울러, 어선원 복지에 대한 여러 국제 기준과 모범 사례를 발표했다.

FCF는 산업이 점차적으로 노동권을 개선하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공급망 파트너 및 송출업체와 계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2년 7월 2일자



컨테이너 운임, 성수기임에도 하락

주요 교역 루트 운임 하락

컨테이너 운임이 연중 가장 바쁜 시기에 하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7월 태평양 횡단 운임이 80%나 상승하면서 컨테이너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올해 화물 포워딩 업체 Flexport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운송업자의 약 절반만이 3분기에 수요가 최고점에 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약 3분의 1의 운송업자는 높은 수요가 아예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은 지난 4월 이후 아시아-미국 서부 연안(USWC) 운임이 절반으로 하락한 것에 기인했다.

국제 화물 운임 지표인 FBX에 따르면, 40피트 컨테이너(FEU)의 7월 7일 기준 운임은 1대당 7,425 달러이다. 1주일 전에는 2020년 6월 이후 최초로 컨테이너 운임이 전년도 동기 대비 하락했다.

아시아발-미국 동부 연안(USEC) 운임은 1대당 9,872 달러로,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1만 달러 미만

을 기록했다. 해당 거래의 현물 가격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분의 1 하락했다.

Flexport의 해양 부문 수장인 Anders Schulze는 수요가 급락했다는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고, 화물 출발지와 목적지 항구의 혼잡이 완화됨에 따라 선적 공간이 확보되어 동서 주요 교역 루트의 처리 속도 증가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분석가들은 이번 성수기의 유독 심한 약세가 수요 감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컨테이너 공급망 리서치 업체인 Sea-Intelligence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USWC의 연간 처리량 증가율은 5% 미만이며, 아시아-유럽 연간 처리량은 증가 없이 그대로였다.

국제 화물 결제 플랫폼인 Freightos의 분석가 Judah Levine에 따르면 미국행 수요 감소 조짐 및 중국 제조업체의 주문 감소, 미국 내 특정 상품의 재고 과잉 등이 관측되고 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7월 11일자

바이든, '폭리' 해운업체 압박하는 법안 서명

해운사 부과 연체료 실태조사·선적 부당거부 방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6일 해상선 적개혁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연방해사위원회가 해운업체와 항구 터미널이 부과하는 연체료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 컨테이너 업체가 화물을 실을 공간이 있음에도 미국 상품 선적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태를 저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3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하원 역시 최근 찬성 396명, 반대 42명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처리한 바 있다.

* 기사 출처: YTN, 2022년 6월 17일자



노르웨이 상반기 수산물 수출 69억 달러

지난해 대비 31% 증가

노르웨이의 올해 상반기 수산물 수출 금액은 가격 상승 및 수요 증가에 힘입어 약 701억 크로네(약 6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31%(16억 달러) 증가한 수치이다.

연어는 노르웨이 상반기 수출 금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어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선 연어 평균 가격은 kg당 87.37 크로네(약 8.66 달러)로, 지난해(58.29 크로네, 약 5.77 달러) 대비 크게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노르웨이의 연어 총 수출량은 53만 4,500톤으로 약 5% 감소했다, 수출 금액은 484억 크로네(48억 달러)로 지난해 수출 금액(132억 크로네, 약 13억 달러) 대비 37% 증가했다.

최대 수출 시장은 폴란드, 프랑스, 미국이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수출이 가장 크게 성장했다.

흰살생선 부문의 경우, 신선 대구의 상반기 수출량은 총 4만 1,700톤이며 수출 금액은 20억 크로네(1억

9,800만 달러)이다. 생산량은 14% 감소했으나 수출 금액은 14% 증가했다. 덴마크, 네덜란드, 폴란드가 노르웨이 흰살생선의 최대 수입국이었다.

냉동 대구의 상반기 수출량은 5만 600톤이며, 수출 금액은 25억 크로네(약 2억 4,750만 달러)였다. 수출량은 지난해 대비 14%, 수출 금액은 43% 성장했다. 중국, 영국, 미국이 노르웨이산 냉동 대구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이다.

노르웨이산 청어 수출량은 14만 2,200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 감소했으며 수출 금액은 18억 크로네(1억 7,8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약 4% 감소했다. 고등어 수출량은 8만 4,200톤으로 28% 감소했으며, 수출 금액은 16억 크로네(1억 5,840만 달러)로 10% 감소했다. 노르웨이산 청어의 최대 수출 시장은 폴란드, 이집트, 리투아니아이며 고등어 최대 수출 시장은 한국, 중국, 일본이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s, 2022년 7월 8일자

캐나다 기업, GFW에 위성정보 접근 제공

IUU 근절 지원 목적

캐나다 우주·위성 기술 기업인 MDA Ltd는 2022년 유엔 해양회의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 위치정보 공개 플랫폼인 GFW(Global Fishing Watch)에 자사 위성의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기록에는 14년간 축적된, 26억 km² 이상의 해양 SAR(공중에서 지상 및 해양을 관찰하는 레이더) 데이터를 비롯한 97만개 이상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s, 2022년 7월 4일자



생선 통조림 섭취, 대장암 위험 34% 감소시킨다.

이탈리아 연구소 및 대학 연구 결과

한 연구에 따르면 참치, 고등어, 정어리 등 생선 통조림을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1회 섭취 시 80g) 섭취한 사람들은 대장암에 발병 위험이 더 낮다.

이탈리아연구소 2곳(Mario Negri Institute for Pharmacological Research, Italian Institute for Planetary Health)과 밀라노 대학교가 함께 수행한 이 연구는 최근 국제학술지 Nutrients에 게재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오일이 함유된 생선 통조림을 최소 2회분 섭취하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34% 감소했다고 한다.

Mario Negri 연구소의 Carlotta Franchi는 “오일

이 함유된 생선 통조림이 찌서 방부제 없이 최소한의 가공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딛었다”며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매우 적절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연구원 Barbara D'Avanzo는 “생선 통조림의 이러한 이점은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나 생선 자체에 존재하는 다른 영양소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10일자

미쓰비시·마루하니치로 육상 연어 양식 진출

합작회사 Atland Company 설립

일본 미쓰비시와 마루하니치로가 일본 도야마현 뉴젠 정에서 육상 연어 양식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 이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비용은 약 110억 엔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는 2025년에 연어 양식장 운영을 시작하고 2027년에 첫 물량 출하를 희망한다. 초기 연간 생산량은 2,500톤이다.

합작회사 Atland Company의 지분은 미쓰비시가 51%, 마루하니치로가 49%이다.

양사는 “공동 프로젝트의 목표는 일본 연어 산업에서 현지 생산-현지 소비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연어 양식 국가에서 일본으로 연어를 수입해오는 현재 시스템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라고 말했다.

Atland의 순환여과양식시스템(RAS)은 구로베강에서 발원된 지하수와 도야마만의 해양심층수를 사용한다. 도야마현에는 300미터 이상 깊이의 저온 심층수가 다량 존재한다. 온도는 섭씨 2도 미만, 염도 수준은 34% 이상, 용존산소량은 7ml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6월 30일자



美 수산물 매출, 물가 상승 영향으로 하락

캔, 포장 수산물 판매는 증가

미국의 6월 신선 수산물 물가는 단위(unit)당 평균 10.9% 상승했다. 지난 2개월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상승세이다. 리서치 업체 IRI와 210 Analytics의 신규 데이터에 따르면, 냉동 수산물 매출은 6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신선 수산물 판매는 한층 심각했다.

210 Analytics의 Anne-Marie Roerink 대표에 따르면, 어류 평균 가격은 개당 10.00 달러 이상으로 2021년 6월 대비 21.3%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신선 수산물의 6월 매출은 13.3% 급감한 5억 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2분기 신선 수산물 전체 가격은 단위당 평균 9.47 달러로 지난해 2분기 대비 12.2% 급등했다. 참치 가격은 22.1%, 대구 가격 18.4%, 연어 가격은 17.6% 상승했다.

냉동 수산물의 6월 매출은 5억 2,000만 달러로 신선 수산물 매출을 넘어섰으나, 물가 상승은 냉동 수산물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Roerink는 “냉동 수산물 매출은 동물성 단백질 분야에서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냉동 부문이 모두 성장하는 동안 냉동 수산물 매출 금액은 7.4%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미국 소비자들의 비용 절감 노력으로 상온 보관 수산물 매출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6월 상온 보관 수산물 매출은 2억 900만 달러이다. 상온 보관 수산물의 6월 물가 상승률은 8.8%로 가장 낮았고 개당 평균 가격은 2.08 달러였다. 이로 인해 2022년 2분기 매출은 9%, 6월 매출은 7.8% 증가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s, 2022년 7월 11일자

미국 소비자들, 수산물 추적 원해

구매 중요 사항, 가격, 지속가능성, 가공국가 순

비영리 단체 Walton Family Foundation(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과 그의 아내가 설립)는 시장조사 업체인 Morning Consult를 통해 성인 2,21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수산물 및 육류 구매에서 추적 가능성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는 가격(91%), 지속가능성(70%), 가공 국가·어업 양식 여부(65%) 순으로 구매 고려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꼽았다.

78%는 식당과 식료품 판매점이 판매하는 식품의 출처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고 68%는 미국이 수산물을 추적하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아울러, 60%는 강제 노동으로 어획한 어류 제품의 구매를 줄일 것 같다고 답변했고 58%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수산물을 구매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10일자



FAO, 2022년 세계 어업·양식업 현황 발표

참치 세계 소비 1위 어종 유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유엔 해양회의 2022에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6월 29일 2022년판 세계 어업·양식업 현황(SOFIA)을 발표했다.

FAO의 Manuel Barange 어업·양식업부장은 2020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이 2억 1,400만톤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자연산 어업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2.1% 감소한 9,030만톤, 양식 생산량은 2.7% 증가한 1억 2,260만톤이다. 수생 동물(aquatic animal) 생산량은 1억 7,800만톤, 조류(藻類) 생산량은 1.4% 증가한 3,600만톤이다.

한편, 2020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2kg으로, 1960년의 1인당 소비량인 9.9kg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2019년 1인당 소비량인 20.5kg 대비 다소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2021년에는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치는 2020년 실질적으로 인간이 가장 많이 소비한 자연산 어획 어종이다. 1위는 멸치(489만톤)이지만, 해당 종은 대부분 어분용으로 사용된다. 가다랑어와 황다랑어의 생산량 합계는 약 439만톤으로, 전체 자연산 어획량의 6%를 차지했다.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참다랑어 등 타 주요 상업용 참치가 '기타'로 분류된 것을 감안하면, 참치는 세계 최대의 자연산 어업 어종임을 알 수 있다.

참치류 어획량 합계는 2019년 820만톤이었으나

2020년 780만 톤으로 감소했다. 이는 신선 참치 수출 및 생선회 시장이 코로나19 규제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참치류 중 가다랑어와 황다랑어가 이 중 55% 이상을 차지했다.

FAO에 따르면 2020년 수산물 생산량 중 1억 5,700만톤(89%)이 인간 직접 소비(식용)로 사용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인 2018년보다 좀 더 많은 수치이다. 참치를 비롯한 수산물은 2019년 소비된 동물성 단백질의 약 17%를 차지했으며, 중하위소득 국가에서는 23%,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50% 이상이었다.

나머지 2,000만톤은 비식용이며, 이 중 1,600만톤은 어유, 400만톤은 어분이다.

FAO는 2030년까지 어업·양식업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생산, 소비, 무역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생 동물 총 생산량은 2030년 2억 200만톤까지 증가할 것이며, 이 중 양식 수생 동물 생산량은 2020년 8,700만톤에서 2030년 1억 600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자연산 어업 생산량은 자원 관리 개선, 폐기율의 감소 등으로 2030년 9,6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 기사 출처: FAO SOFIA 2022, Atuna, 2022년 6월 30일자,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7월 1일자



러시아 은행 SWIFT 퇴출로 가속화된 탈 달러화 유라시아연합 5개, 인도, 중국 등은 자국 통화로 결제 확대 중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2022년 3월 2일, 러시아의 주요 7개 은행(VTB, Otkritie, Rossiya Bank, Promsvyazbank, Sovcombank, Novikombank, VEB)이 SWIFT 국제 결제 망에서 퇴출됐다. 그리고 민간은행인 알파뱅크(Alfa bank)는 미국과 영국의 SDN 제재(특별지정경제제)로, 국제 결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다. 2022년 6월 3일, 유럽 연합은 6차 대러 제재로 러시아 스베르뱅크, 모스크바 크레딧뱅크(MCB), Rosselkhozbank(RSHB)를 SWIFT 퇴출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동 3개 은행들도 유럽 은행들과 거래가 불가능하게 됐다.

SWIFT 결제망을 대체하려고 러시아가 개발한 SPFS 시스템은 2022년 3월 2일 SWIFT 결제망으로부터 러시아 주요 은행들의 퇴출 발표 당시, 400개 러시아 현지 금융기관이 가입해 있었고, 거래 트래픽 기준으로 송금 거래 비중은 20% 정도였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SPFS의 결제 시장 점유율을 2023년까지 3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그러나 SPFS는 기능 면에서 아직 미숙한 결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서 대안은 중국의 CIPS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다. SPFS 보다 기술적인 면과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면에서 현실적이라는 평가이나 세계 결제 거래에서 CIPS 거래량 비중은 2% 미만 수준이다. 2022년 1월 기준 CIPS 시스템 사용에 등록한 러시아 금융기관 수는 23곳이었다.

러시아가 CIPS 사용 비중을 높이는데 아직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다고 한다. CIPS는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국제 교역 대금 결제를 위안화로 대폭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세계 교역의 위안화 대금 결제 비중은 2.7%에 불과해 국제 통화 기능은 다소 미약하고, 교역 대금 결제 통화

를 위안화로 대폭 전환하면서 대 중국 러시아 경제의 존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위안화 교역 결제 외, 러시아가 수출 대금을 루블과 수입국 현지화 직접 거래에 대한 방안을 구축한 사례는 인도 루피와 러시아 루블 교역 대금 결제 협상이다. 2022년 3월 중순 로이터 통신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루피와 루블 거래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2022년 3월 18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5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은 루블로 교역대금 결제를 합의했다고, 레세트니코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이 발표했다. EAEU에서 본위화폐를 루블로 단일화하는 것은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 당시부터 추진해 왔으나 이번 합의로 루블 단일화를 위한 각 연합국들은 구체화하는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한편, 루블 단일화를 대체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유라시아경제연합국 공동 통화를 창설하는 것이다.

2013년~2020년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의 자국 통화 상호결제 비중은 63%에서 73.5%로 증가한 상황이다. 그리고 세르게이 글라지예프(Sergey Glazyev)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거시경제 장관은 2022년 3월 22일, 서방 제재 확대와 러시아 해외자산 동결 확대로 유라시아경제연합 내 달러, 유로, 파운드 결제방식이 완전히 포기될 날이 가까웠음을 선언했다. 게다가 유라시아경제연합 내 세계 주요 통화 결제방식이 사라지게 되면 유라시아의 역외 FTA 체결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유라시아 거시경제 장관은 밝혔다.

* 기사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년 6월 23일자



美-英,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어업 둘러싼 갈등 아르헨티나, CCAMLR에 英 이빨고기 어선 IUU 등재 요청

AP통신과 가디언지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이 남극 근처의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어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러시아는 2021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26개 회원국 과학자들이 제안한 어획 쿼터를 거부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 상당수의 국제 어업 협정은 만장일치로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일방적인 거부권으로 작용했다.

영국이 올해 봄 포클랜드에서 동쪽으로 약 1,400km 떨어진 사우스조지아 해안에서 조업 허가를 발행하면서 문제는 더욱 커졌다. 5월 1일 조업을 허가받은 4척 중 3척은 영국-노르웨이 기업인 Argos Froyanes 소속이다.

미국 관료들은 영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해당 수역에서 잡힌 이빨고기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 전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아르헨티나는 모든 CCAMLR 회원국에 불법 어획된

종의 거래를 피할 것을 요구했다. 아르헨티나는 또한 CCAMLR 집행 사무국에 해당 영국 국적 어선들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선박 목록에 등재할 것을 요청했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타 회원국의 지지를 요구했다.

그린피스 해양 책임자 Will McCallum은 세계에서 가장 잘 관리되는 어업인 이빨고기 어업에서 위험한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남극 크릴새우에 대한 상업적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빨고기 어업은 러시아, 중국, 미국 등의 강대국이 남극해 보호를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한 모범 사례였다. McCallum은 “러시아가 의사결정 과정을 악용했다고 해서 타 회원국의 일방적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으며, “크릴 선단을 건조 중인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6월 24일자, MercoPress, 2022년 6월 27일자

케냐, 어획량 증대 위해 합작 투자 장려

관련 법률·규정 마련 추진

케냐 정부는 소규모 어업인들이 상업 및 산업형 양식업자로 전환 가능하도록 법률과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케냐 농축산어업협력부의 수산·양식·청색경제부서(State Department for Fisheries, Aquaculture & Blue Economy) Rodrick Kundu 국장은 새로운 법 마련으로 현지 어업인들이 투자자들과 협력

하는 합작 투자를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Kundu 국장은 “현재 케냐가 연간 15~30만톤의 어획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어획량은 2만 5천톤에 불과하다”며 “어업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 법적, 제도적 틀을 개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KenyaNewsAgency, 2022년 6월 17일자



MSC, 새 어업 표준 승인

2022년 10월 발표...조정기간 6년

해양관리협의회(MSC)의 어업 표준 검토 프로세스가 완료되었다.

MSC는 6월 24일 이사회가 신규 버전의 어업 표준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새 표준은 MSC가 ETP종(멸종위기, 멸종우려종, 보호종)을 관리하는 방법, 상어 지느러미 채취 표준, 어업이 혼획을 관리하는 방식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포함한다.

새 표준의 완성본은 2022년 10월 발표될 예정이며, 평가에 들어가는 어업은 2023년 5월부터 새 표준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현재 인증을 취득한 어업이 새 표준에 맞춰 조정하는 기한은 6년이다.

MSC는 새 표준에서 변경된 몇몇 내용으로 인해 일부 NGO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MSC측은 새 표준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목표와 현실적인 요구 가능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MSC가 수립한 새 표준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TP종 보호를 위한 신규 요구사항이 있으며, 개체군 회복을 위해 모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자연 부착 지느러미(fins naturally attached)” 정책은 기존에 존재했던 MSC 어업 상어 지느러미 채취 금지 조항을 강화한 것으로, 상어가 포함된 모든 어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 기존 표준은 간소화되었다. MSC는 이를 통해 평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표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가 관리하는 다중 관할 어업에 대한 신규 조치는 신뢰성 있고 강력한 어획 전략 보장을 목표로 한다.
- 신규 증거 요구사항은 바닷새 등의 혼획 관리 방법에 대한 더 강력한 증거 제시를 요구한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s, 2022년 6월 24일자

ICES, 바렌츠해 대구 쿼터 권고안 발표 안 해

노르웨이-러시아 간 협의에 따라 쿼터 설정될 것

노르웨이 해양연구소(IMR)에 따르면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는 바렌츠해 대구, 해덕대구에 대한 쿼터 권고안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바렌츠 대구, 해덕대구 어업은 노르웨이와 러시아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쿼터는 일반적으로 ICES 조언을 반영해 노르웨이-러시아 공동수산물위원회(JRNFC)에서 10월경에 설정된다.

ICES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3월 30일부터 러시아 활동 자격을 정지시킨바 있다.

노르웨이 해양연구소 대변인은 “노르웨이와 러시아는 북동대서양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양자 협의 절차를 시작했으며 올해 말에 쿼터 권고안이 발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6월 15일자



고등어 쿼터 둘러싼 유럽 연안국 긴장 고조

노르웨이·페로제도 일방적 쿼터 설정에 타국 반발

노르웨이와 페로제도의 일방적인 고등어 쿼터 설정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지난 6월 23일 2022년 고등어 쿼터를 지난해 대비 7% 감소한 27만 8,222톤으로 설정했다. 연안국이 합의한 전체 쿼터(79만 4,920톤) 대비 할당 비율은 35%이다.

한편 페로제도는 2022년 쿼터를 15만 5,804톤으로 설정했다. 이는 전체 쿼터의 19.6%이다. 양국은 쿼터 배분 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EU, 페로제도,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영국은 대서양 북동부 고등어·청어와 대서양-스칸디나비아 청어에 대해 합의된 전체 쿼터의 개별 배분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North Atlantic Seafood Forum에서 수산업 데이터 디지털 플랫폼인 Fishfacts의 Oli Samro가 발표

한 내용에 따르면, 두 국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쿼터를 적용할 경우 연안국이 합의한 전체 쿼터를 41%나 초과한다.

EU어업인단체(Europeche)와 유럽어류생산자협회(EAPO)가 대변하는 유럽 어업 부문은 노르웨이와 페로제도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쿼터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며, 고등어 자원 남획을 막기 위해 EU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관련 연안국 과학자들이 노르웨이가 쿼터를 정할 때 근거로 삼은 Zonal Attachment Approach(현재의 어장 상태를 평가해 배분하는 접근 방식)을 두고 '데이터가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결함이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현 시점에서 EU와 영국만이 최신 자원 공유 협정에 근거한 쿼터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6월 24일자

인공지능 연구, 어획물 분류 등 수산업 활용 가능

어선 에너지 효율 향상, 어업 투명성 향상 등에도

스페인 연구 기관 AZTI는 유럽 의회(EP)의 요청으로 라코루냐대학교와 협력해 수산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진은 현재 수산 분야에 적용 가능한 AI 기술로 생물학적 표본 처리를 위한 머신러닝, 어선 에너지 효율 향상, 어종·사이즈별 어획물 분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EU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AI 법안에 수산 부문과 인재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어업 활동의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등 AI를 활용한 수산 부문 대중적 이미지 향상도 한 가지 대안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17일자



바다

정 연 복

시간의 바다에 떠 있는
돛단배와 같은
인생살이는 참
파란만장한 항해입니다.

기쁨과 행복의 웃음바다를
통과할 때도 있고

슬픔과 불행의 울음바다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한순간도 쉼 없이
내 앞에 찾아오는 시간의 파도

오늘만큼은 좀
잔잔하면 참 좋겠습니다.





6월 오징어 국내 동향

금어기 해제에도 원양산 반입 줄어 전월 대비 생산량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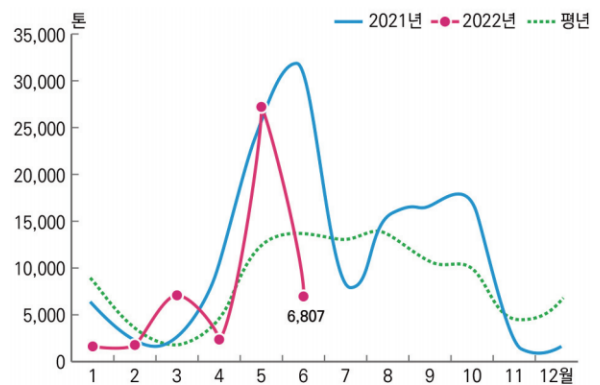
□ 생산동향(6월 오징어 생산량, 전월 및 작년 동월에 비해 부진)

2022년 6월 오징어 생산량은 6,807톤으로 전월(25,594톤) 및 작년 동월(31,235톤) 대비 각각 73.4%, 78.2% 감소했다.

연근해산은 2,220톤으로 금어기가 해제되며 전월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유류비 등 출어비 부담이 커 출어가 감소해 작년(2,979톤) 및 평년(2,486톤)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원양산 반입량은 전월보다 81.3% 감소한 4,587톤으로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83.8%, 58.9% 감소했다.

한편, 2022년 6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4만 5,111톤으로 작년(77,921톤)보다 42.1% 적었으며, 평년(45,524톤)과는 비슷했다.



주 : 2022년 6월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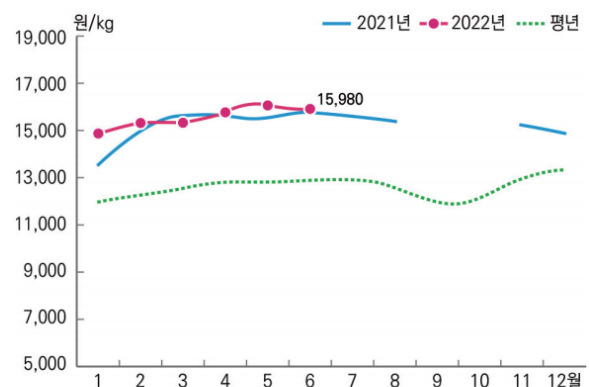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해양수산부, 잠정치는 당 센터 추정 결과

□ 가격동향(6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kg당 15,980원으로 전월과 비슷)

6월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kg당 3,417원으로 평년 및 작년보다 낮았으며, 도매가격은 13,979원으로 전월(13,900원)과 비슷했다.

신선냉장품은 대부분 조사 규격(마리당 300g 내외)보다 작은 크기의 상품이 유통되어 소비자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

오징어(냉동)의 도매 및 소매가격은 각각 kg당 9,757원, 15,980원으로 전월 대비 보험세를 나타냈다.



주 : 2022년 6월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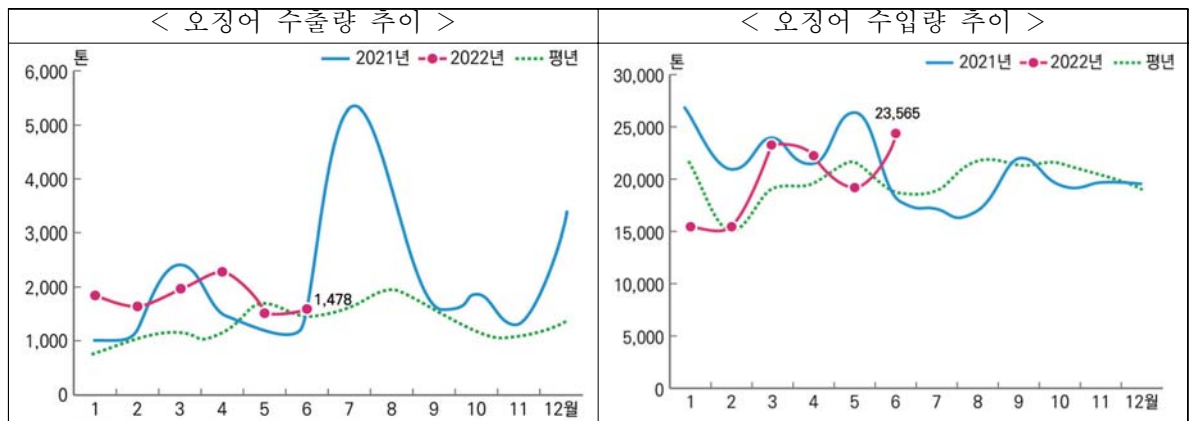
자료 : aT KAMIS



□ 수출입동향(6월 오징어 수입량, 전월 대비 24% 증가한 2만 3,565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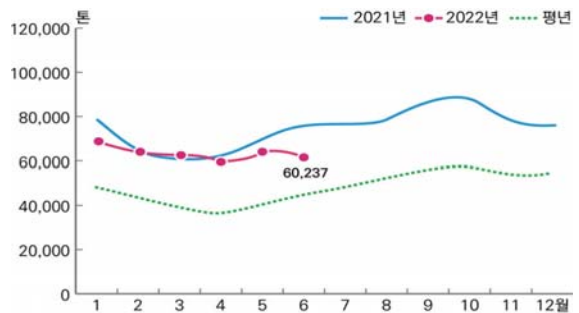
6월 오징어 수출량은 전월과 비슷한 1,478톤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제품별로는 냉동오징어가 1,101톤으로 전체의 74.5%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759톤)과 미국(480톤)으로의 수출량이 전체의 83.8%를 차지했으며, 그 외에 베트남(86톤), 호주(41톤) 등으로 수출되었다.

6월 오징어 수입량은 페루산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월(18,966톤) 대비 24.2% 증가한 2만 3,565톤이었다. 페루산이 1만 1,137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국산 8,713톤, 러시아산 1,132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11만 8,510톤으로 평년과 비슷했으나 작년(137,354톤)보다는 13.7% 감소했다.



□ 재고동향(6월 말 기준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6% 감소한 6만 237톤)

6월 말 기준 오징어 재고량은 6만 237톤으로 전월 (63,882톤)에 비해 5.7% 감소했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19.8% 적었다. 연근해산 재고량은 생산이 적어 전월 대비 4.8% 감소했으며, 원양산 또한 반입이 크게 줄면서 전월 대비 6.0% 감소했다.



* 자료 출처: KMI 수산물측 7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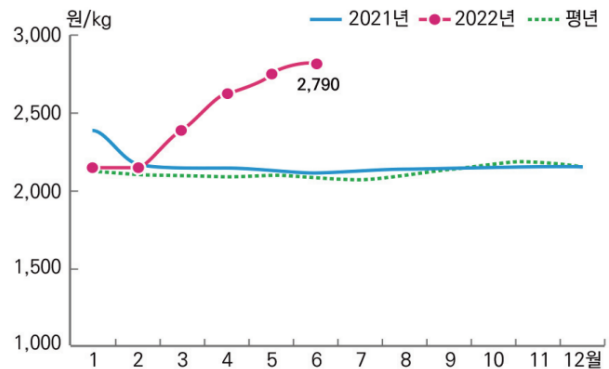


6월 명태 국내 동향 가격 상승세 멈추고 보합

□ 가격동향(6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kg당 4,969원으로 상승세 멈추고 보합)

6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소비가 줄어드는 비수기에 접어들며 상승폭이 완화되었다. 전월(2,750원) 대비 소폭 상승한 kg당 2,790원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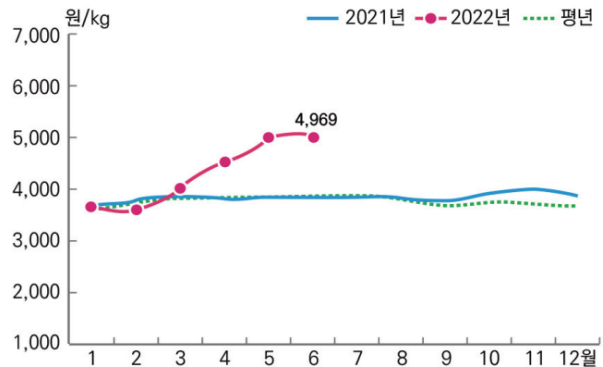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는 각각 29.6%, 32.5% 높았다.



주 : 2022년 6월은 잠정치임
자료 : aT KAMIS

명태(냉동) 소비자가격도 전월(4,960원)과 비슷한 kg당 4,969원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여전히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는 각각 29.5%, 29.1% 높았다.



주 : 2022년 6월은 잠정치임
자료 : aT KAM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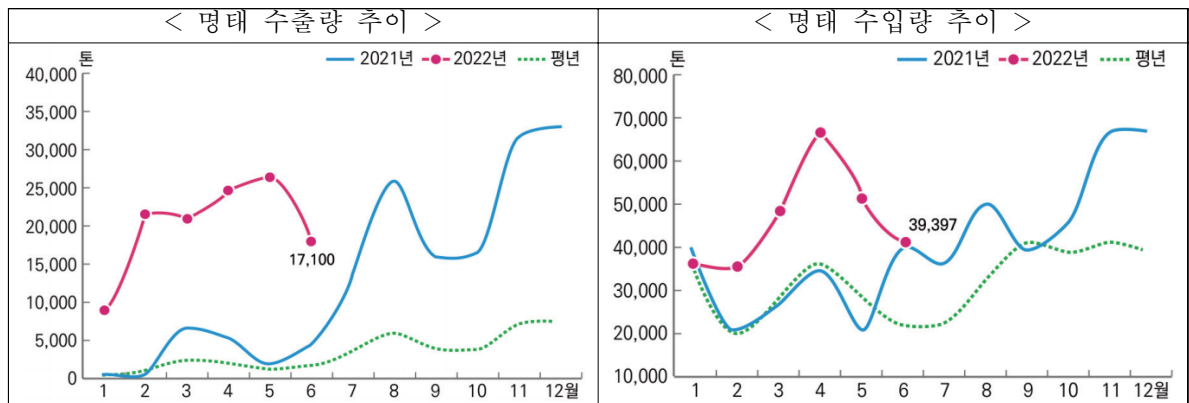


□ 수출입동향(6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24% 감소한 3만 9,397톤)

6월 명태 수출량은 1만 7,100톤,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러시아산 명태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전월(26,737톤) 대비 36.0% 감소했다. 여전히 작년에 비해 세 배 이상, 평년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많았다.

수출대상국 및 제품형태별로 살펴보면, 중국으로 냉동명태 1만 4,070톤과 냉동필렛 224톤, 베트남으로 냉동명태 761톤 등이 수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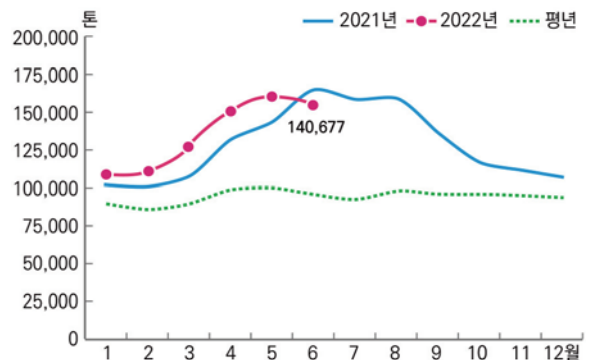
명태 수입량은 러시아산 냉동명태 물량이 줄며 전월(51,989톤)보다 24.2% 감소한 3만 9,397톤이었다. 작년과 비슷했으나 평년 동월에 비해서는 77.1% 많았다.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러시아산 냉동명태 2만 523톤, 미국산 냉동연육 9,200톤, 러시아산 냉동필렛 6,448톤 등의 순이었다.



□ 재고동향(6월 재고량, 전월과 비슷한 14만 677톤)

6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전월(141,185톤)과 비슷한 14만 677톤이었다.

중국으로 수출을 위한 환적 대기 물량이 많았던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14.6% 적었다.



* 자료 출처: KMI 수산물측 7월호



2030부산세계박람회 특사단, 태평양 도서국 릴레이 면담 동원산업 등 민간도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교섭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7월 10일부터 사흘간 피지 수바에서 사모아, 피지 정상과 투발루, 나우루, 솔로몬제도, 마셜제도, 바누아투 각료급 대표 등 7개국 최고위급 인사와 각각 면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조승환 특사는 7월 10 피아메 나오미 마타아파(Fiame Naomi Mata'afa) 사모아 총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사이먼 코페(Simon Kofe) 투발루 외교장관, 조세이아 보렝게 바이니마라마(Josaia Voreqe Bainimarama) 피지 총리, 아스테리오 아피(Asterio Appi) 나우루 대통령 특사(외교차관), 제레미야 마넬레(Jeremiah Manele) 솔로몬제도 외교장관, 존 실크(John M. Silk) 마셜제도 상업·천연자원장관, 마크 아티(Marc Ati) 바누아투 외교장관과 면담을 갖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간 관심사를 논의했다.

이번 릴레이 면담은 우리 특사단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정상회의(7.11~7.14, 피지 수바)에 참석한 태평양 도서국 중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에 요청하여 성사된 것이다.

다수의 국가들이 부산엑스포의 기후변화 등 주제에



대해 크게 공감을 표했고, 특히 일부 국가는 공식적으로 부산을 지지하겠다고 표명했으며, 상당수의 국가는 부산의 엑스포 개최 가능성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얻어낸 것은 이번 특사방문의 큰 성과이다.

한편, 이번 특사단 방문에 동행한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 조대식 SK SUPLEX추구협의회 의장, 이명우 동원산업 대표이사,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사모아 총리, 피지 상업관광부 장관 및 상공회의소 회장, 투발루 수산청장과 별도로 면담을 갖는 등 민간 차원에서도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조승환 특사는 통가 총리, 팔라우 대통령 등과도 개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해수부 비축 수산물 상시 방출 체제 가동 수산물 상생할인 확대, 7.14부터 수산대전-7월 여름특별전 개최

7월 8일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확정되었다.

수산물 물가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이나, 유가 상승 등 생산비용 증가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4월부터 2%대에 진입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비축물량 상시방출 체제'를 가동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안정 대응반'을 통해 대중성어종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매일 가격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있으며,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대중성어종은 즉시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명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마트를 대상으로 7월 11일(월)부터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명태를 판매할 계획이며, 소비자 직판처 수요를 고려해 동태탕 등의 재료로 쓰이는 중간 크기의 명태를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방출 결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현장 수요와 가격 변동 상황을 고려해 방출 물량 및 방출처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예비비 2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7월부터 총 380억원 규모의 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상반기 5회, 183억 원)한다. 당초 하반기로 계획된 할인행사(총 4회)에 행사횟수를 추가하고 행사규모와 할인품목, 할인한도 등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7월에는 7월 14일부터 7월 31일(오프라인 7.14~27,

온라인 7.18~31)까지 18일 동안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 7월 여름휴가 특별전'을 개최한다. 행사 품목은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굴비), 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과 가정 소비가 증가한 포장회(우럭, 광어)이다.

이번 행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GS 리테일,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12개사와 SSG.com, 쿠팡, 위메프 등 21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1인당 1만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더해 소비자들은 품목별로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행사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 수산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 상품권은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 약 12,966개소에서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4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상무	신현애	589-1602	해외협력본부장
이사	이형균	589-1603	경영지원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강성현 부장	589-1604	총괄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신현애 상무	589-1612	총괄(겸직)
		공길웅 과장	589-1605	총무, 자금			최봉준 과장	589-1613	국제 협력
		조성환 과장	589-1606	서무관리, 차량운영			백상진 주임	589-1614	참치선망
				-			589-1615	참치연승	
	기획홍보부	이형균 이사	589-1607	총괄(겸직)	해외협력 2부	진호정 부장	589-1616	총괄	
		김영수 과장	589-1608	기획, 홍보		조성주 과장	589-1617	복양, 품치	
		김민재 사원	589-1609	원양뉴스, 생산통계		최상진 사원	589-1618	오징어, 기타트롤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589-1610	총괄	부산지부	-	이성재 이사	(051)	총괄
		김효상 과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김현애 과장	253-3388	확인업무(수출,반입등)
최동환 주임		589-1619	노사, 선원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장	051)	차량계량	
					최광준 팀장	253-3391	차량계량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이상목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기구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		김수민 전문관	044-868-7363	일반/지역수산기구
	국제협상지원팀	한지수 행정관	044-868-7837	OFIS, 해외수산투자, 행정	해외진출지원팀	서규혁 행정관	044-868-7836	ODA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기구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통계, 협의회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a.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운홍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675-321-8137 jc651016@gmail.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47호

발행처
특수
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발행 : 2022년 7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윤명길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현명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통조림용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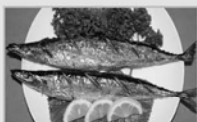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조기류(민어과)

제수용 생선으로 제격



공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